News p/3

메르스 늑장대응, 軍도 위험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9일 화요일 제3232호 www.metroseoul.co.kr

News p/5

박원순 피자 값만 440만원

제일모직 상장의 비밀

상장사는 기업가치 고려없이 합칠 당시 주가만으로 합병가액 결정
비상장사는 자산·수익가치로 평가… 제일모직이 대표적 수혜 사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의 합병비율을 정하는 관련 제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업 본연의 자산 및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병계약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하는데, 제일모직처럼 테마성 수급에 의해 주가가 뻥튀기된 경우 자산가치가 훨씬 많은 상대기업 주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론 이런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다.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은 △합병계약일(기산일) 직전 1개월간 종가평균 △1주일간 종가평균 △기산일 전일의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에서 10% 할증 또는 할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합병가액을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한다.

지난달 26일 합병 공시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은 1주당 각각 15만9294원, 5만5767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로 정해졌다.

그러나 제일모직이 비상장사 였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상장사 제일모직과 상장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삼성물산의 가치가 더 높아 질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은 비상장사의 경우 합병가액을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이 합병공시에서 밝힌 제일모직의 자산총계는 8조1833억원인데 비해 삼성물산은 이의 3배가 넘는 26조1556억원이다. 총부채를 뺀 총자본(1분기 말 기준)도 제일모직이 4조7119억원인데, 삼성물산은 역시 이의 3배인 13조9405억원이다.

자산가치만 볼 경우에는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되레 삼성물산 3, 제일모직 1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수익가치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옛 에버랜드인 제일모직은 지난해 12월18일 상장됐다. 만약 제일모직이 비상장 상태에서 이번 합병을 추진했다면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회계사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지분가치 뻥튀기에 대한 엄청난 비난 여론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지난해말 제일모직 상장을 강행한 이유를 이번 합병계약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제일모직이 비상장 상태에서 삼성물산 등과 합병을 했으면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통합법인에서 확보할 지분율은 현재 안에 비해 한참 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엘리엇이 나름 자신있는 태도로 삼성을 공격하는 것도 이런 제도적 허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여차하면 이번 건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태세다. 삼성물산은 영국 런던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놓은 상태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건이 7월17일 주총에서 통과되더라도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리로 삼성물산 이사회 멤버 등을 런던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상법은 독일법계인 우리나라보다 주주가치 보호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경향이 있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계약에서 삼성물산의 우선주 합병비율을 보통주와 같이 제일모직 대비 0.35로 평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우선주가 있지만 제일모직은 우선주가 없는 점이 논란의 발단이다.

즉 우선주만 보면 제일모직은 비상장 상태이고 따라서 우선주의 기준가격은 비상장사에 준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삼성측이 이를 상장주인 보통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시장상황과 기업가치에 비해 합병 비율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은 엘리엇의 입장일 뿐"이라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할 때 결정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황교안 "병역비리 저지를 처지 아니었다"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면제
그 당시는 모두 소급해 기재
黃 "국가·국민께 빚진 마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제가 신검(징병신체검사)을 받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집안이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특혜를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77~79년 대학 재학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 받다가 80년 7월 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7월 10일에야 최종 병명을 판정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병명 판정도 나기 전에 병역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에는 최초 검사때 판정을 보류하고 군 병원에 정밀검사 의뢰한 사람의 병역처분일자를 최초 검사를 받은 날로 소급해 적용할지 또는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병역법령상 기준이 없었다"며 "실제로는 80년 7월 10일 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최초 검사를 받은 7월 4일로 소급해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도에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최초 신체검사일자에 병역처분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답하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과 9일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 /연합뉴스

당시 군의관은 7월 4일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상에 '이상'으로 기재해 판정을 보류했다가 7월 10일 병명 판정이 나오자 4일자로 소급해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84년 9월 22일 병역법 시행령 17조에 징병검사일자와 병역처분일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신설된 뒤부터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내렸다.

황 후보자는 이날 종합소득세 등을 총리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 검사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계 일부 누락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장관 직 사임 의사를 밝히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메르스 확산 속 가뭄 피해까지 심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위기 가운데 가뭄 피해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메르스 대책에 여념 없는 새누리당이 가뭄 현장을 둘러봐야 할 정도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먼저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주 가뭄 현장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당이 가뭄 상황에 대해 모니터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경기도 김포, 강화, 철원, 파주 등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로부터 소방차 등의 장비를 지원받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으로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 정책투어를 나갈 계획이다. 새줌마는 정책위 주도로 만들어졌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올해 장마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돼 지금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총력대응체제에 돌입해 농업재해대책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이라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웬만하면 EU에 남으시지요"…오바마, 캐머런에 권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에서 별도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이 유럽연합(EU)에 남기를 바란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과자봉지 쥔 채 최후 맞은 3세 여아

창장 참사의 마지막 모습

442명의 희생자를 낸 창장(양쯔강) 참사의 마지막 모습이 구조작업에 참여한 대원들의 입을 통해 생생히 전해졌다.

8일 중국 형초망에 따르면 선체 인양 후 선박 내부 수색에 참여했던 후베이 공안소방대 소속 자오샤오밍 대원은 "여자 어린이의 손에는 아직도 과자봉지가 쥐어져 있었다"며 울먹였다. 발견된 아이는 456명이 탑승했던 둥팡즈싱호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3세 여아였다. 3세 여아의 곁에는 한 명의 노인이 마치 아이를 안아서 보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몸이 굽은 상태로 죽어 있었다는 전언이다.

둥팡즈싱호 침몰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통곡. /연합뉴스

물에 잠긴 선체 내부로 들어가 구조작업을 벌였던 잠수부 웨이춘레이씨는 "사람들의 살고자 하는 욕망은 모두 강렬하다"며 "우리가 구조수색에서 찾은 대다수 희생자들은 두 주먹을 꽉 쥐고 탈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희생자들이 뭔가를 붙잡을 틈도 없었던 것 같다는 설명이다. 생존자에 따르면 지난 1일밤 사고 당시 둥팡즈싱호는 갑작스러운 강풍에 불과 30초~1분 사이에 전복됐다.

중국은 단 14명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은 이번 대참사를 대대적으로 추모하고 있다. 사고 발생지인 후베이성 젠리현의 황전 현장은 "둥팡즈싱호 침몰사건 구조 기념관과 선박운항 안전기지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미 상급기관에 보고했고 기념관 건설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념관에 침몰선 일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침몰선 소속사 등에 요청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 구조작업 전반에 대한 자료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고 강변에 '등대식 기념비'를 세우자는 의견도 나왔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현장을 지나는 선박들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중국 당국은 선체를 인양한 뒤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10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현재도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수습한 시신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확인과 DNA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관련부서에 수색과 관련해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원칙'을 당부하고, 수색 범위를 창장 중류에서 1400km 떨어진 우쏭커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선언한 상태다.

/정윤아기자 yoona1@

의원 격리에 국회 '철렁'… 더 못미더운 정부

문형표 "확산 정점… 오늘부터 메르스 잠재우겠다" 다짐
국회의원조차 격리대상자 판정 혼선 경험… 불신만 커져

평택이 지역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선포에 국회가 술렁였다. 유 의원은 지자체와 보건소간 혼선을 지적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발언 당시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은 순간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메르스 긴급현안질문에서 유 의원은 최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현안질문에서 본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메르스 대응을 둘러싼 관계 당국의 혼선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문 장관을 향해 "(그렇다면)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인가, 능동감시 대상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현장 상황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계획을 발표하니까 일선 지자체와 보건소는 갈팡질팡 어찌 해야 할 줄 모른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에게서 나온 해명은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는 게 고작이었다. 유 의원은 이후 자신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최종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긴급현안질문이 이어질수록 정부의 허점은 늘어나기만 했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졌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여러 번 놓쳤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혼란과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병원 명단만 툭 던져놓고 국민이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내 가족이 얼마나 감염에 위험한지 아는 것"이라며 "병원 명단이 아니라 감염자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거점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발병 첫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워크숍을 했다"며 꼬집었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가 확산되는 정점에 왔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총력을 다해 (메르스를) 잠재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장관의 다짐은 회의장 내의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제334차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메르스 병원' 늑장 발표로 軍까지 위험

군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2명 더 늘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과 거쳐간 병원이 뒤늦게 공개된 결과다. 해당 군인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대위 1명과 공군 소령 1명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추가됐다. 이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과 환자가 거쳐간 서울아산병원을 각각 지난달 28일과 26일 방문했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병원 명단에 따르면 최다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메르스 노출기간이 지난달 17일과 20일 그리고 27일부터 31일까지였다. 육군 대위가 방문한 날짜와 일치한다. 또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노출기간은 지난달 26일이었다. 공군 소령이 방문한 날짜와 일치한다.

정부 발표 이후 해당 병원을 방문한 것을 인지한 대위와 소령은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전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방문일로부터 10여일 이상 신고가 지체된 셈이다.

특히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육군 대위와 공군 소령은 각각 국방부 국군심리전단과 공군본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 핵심부가 메르스 위험에 노출됐다는 이야기다.

이날 국방부는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에 출입한 장병이 있는지를 즉각 파악할 것을 각 군에 지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심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해 해당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예방관찰자로 분류해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온검사하는 입영장병 육군훈련소 관계자들이 8일 입영장병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하고 있다. 훈련소는 메르스 확산 방지차원에서 이날 예정된 입영행사를 취소하고, 입영장병 전원의 체온검사를 해 이상이 있는 입소자는 귀가조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서울·서울아산병원 찾은 군간부 7일 신고
군 메르스 확진·경유 병원 방문자 긴급 파악중

육군과 공군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1명씩 추가됨에 따라 군의 예방관찰 대상 인원도 이들 2명의 주변 장병들을 포함해 182명으로 늘었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170여명이었던 군의 예방관찰 대상자가 7일에는 100여명으로 줄어 진정되는 듯했으나 다시 180여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현재 군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는 오산공군기지 소속 공군 원사 1명이며 메르스 환자를 가까이 한 '밀접접촉자'는 3명이다.

군은 메르스 확산을 막고자 환자 발생 지역 부대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통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 중이다. 국방부도 이날 청사 출입 인원과 차량 탑승자를 대상으로 체열 측정을 시작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박 대통령, 전문가팀에 메르스 전권 부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에 전문가 대응팀에게 전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마련된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대책 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권을 줘서 신속하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고 즉각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염 경로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 그 연결 고리를 완벽하게 단절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즉각대응팀 구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병형기자

아시아 메르스 비상 한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가 지속하자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입국한 홍콩과 중국 본토 외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국민의 메르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홍콩 공항에서 검역요원들이 한국 부산에서 도착한 승객들을 상대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는 모습. /연합뉴스

홍문종 "成 요청 들어주지 못해… 돈 받은 적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이완구 전 총리 이어 3번째 소환
유정복 인천시장·서병주 부산시장 등 6명은 서면조사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 조사를 받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8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의원을 상대로 금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리스트 속 인물을 직접 소환한 것은 앞서 불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홍 의원이 3번째다.

홍 의원은 청사에 들어가기 직전 금품거래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 "(그런 일이) 없다.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성 전 회장이 왜 저를 지목했는지, 저도 가슴 칠 일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며 "리스트 속 다른 인물은 한 번 거론됐지만 난 두 번 거론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에서 어떤 점을 물어볼지는 듣지 못했지만 겸손하게 조사를 받겠다. 자료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자기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을 상대로 과거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은 어떤 목적에서인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권 유력 정치인 8명과의 금품거래 정황을 담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홍문종 2억'이라고 기재된 점이 의혹의 단초가 됐다.

성 전 회장은 올 4월 사망 전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과 더불어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리스트 속 정치인 6명이 최근 금품거래 의혹에 관한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냈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서면조사 없이 직접 소환됐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일조권 침해' 불법 증축베란다 철거해야

法 "손해·위자료 배상" 첫 판결

신축 건물을 지은 후 베란다까지 불법 증축해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철거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빌라에 사는 홍모씨 등 7명이 인접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 A빌라의 1, 2층 4세대를 각각 분양받아 사는데 이 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이후 김모씨 등 2명은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했다.

또 건물 사용승인 직후 A빌라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3~4층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 공간 23.23㎡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감정 결과 A빌라의 101호, 102호는 이전 3시간 이상이던 총 일조시간이 B빌라 신축 이후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다. 또 201호, 202호는 총 4시간 이상에서 각각 1시간 48분, 56분으로 줄었다. 201호는 B빌라의 베란다 증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1시간 14분으로 단축됐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주택의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중 70%와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배상 책임 비율은 도시 주거 환경에서 인접 건물 탓인 일조권 침해를 수인한도까지는 감수해야 한다는 점, B빌라가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켰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됐다"며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성남시장, 환자 개인정보공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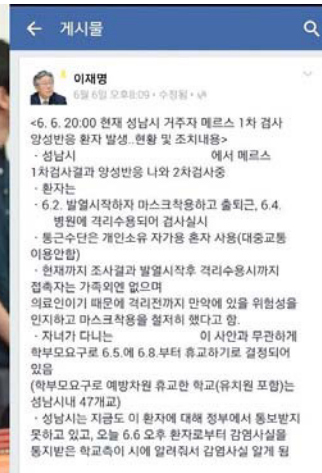
법조계 "위법 아니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한 사례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속 김용표 변호사는 8일 "이 시장이 공개한 (환자 직업·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 등) 개인 정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정보와 종합해 특정인을 파악할수 있으면 위법이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도 (특정인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제공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왼쪽)성남시장, 지난 6일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정보 공개 게시물(오른쪽). /연합뉴스

앞서 지난 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직업,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까지 공개했다. 이를 두고 재난에 따른 질병이라도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 감염환자 수용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측이 무성해지며 시민들이 불안해졌다. 이에 정부의 지침과 어긋나지만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

法, 셀트리온 임원 자녀 6명 증여세 35억 취소

법원이 회사 임직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공시된 자료에 기초해 주식을 샀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원 자녀 6명에게 부과한 증여세 3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셀트리온 부사장 2명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자녀 6명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2010년 12월 3일 헬스케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의 주식 총 4050주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고, 이후 제품개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와 대규모 외자유치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며 '구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총 3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은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업경영 등과 관련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때 적용된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주식 취득에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D피자와 무슨 관계?

D피자 특정지점서 업무추진비로 1~3월 440만원어치 집중주문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올 1~3월 석달동안 쓴 업무추진비 7035만여원 가운데 440만원 정도를 '직원 격려' 명분으로 피자를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박 시장이 거래한 피자가게가 서울 서대문에 있는 특정 외국계 브랜드 피자의 특정 지점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8일 서울시가 인터넷에 공개한 4급 이상 공직자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올 1~3월 근무일 기준 평균 3일에 1번 꼴인 23차례, 총 441만8620원어치의 피자를 시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 가운데 21차례를 D피자 서대문점에서 주문했다.

이 가게는 서울시청 본관에서 2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박 시장이 시청과 가까운 피자 가게를 놔두고 굳이 왜 이 가게와만 집중적으로 거래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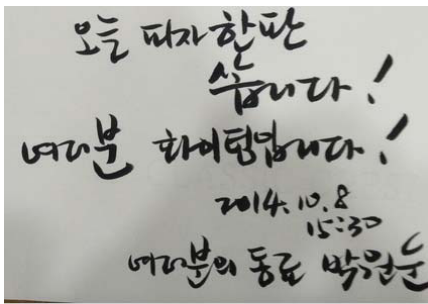
박 시장이 이 기간에 D피자 서대문점 이외에서 두차례 피자를 구매한 곳도 같은 브랜드인 D피자 뚝섬로 지점이다. 박 시장은 하루에 4차례 같은 가게에서 건당 13만~24만원어치씩 피자를 주문한 적도 있다.

박원순 시장의 1~3월 피자 구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1월에는 ▲9일, 4회 67만9600원 ▲19일, 2회 55만1200원 ▲20일, 1회 3만4500원 ▲21일, 2회 40만2000원 ▲30일, 1회 25만8400원 등으로 총 10회 192만5700원을 사용했다.

2월에는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주문한 기록이 없다.

3월에는 ▲11일, 2회 71만1520원 ▲13일, 2회 38만9600원 ▲17일, 2회 36만1200원 ▲18일, 2회 27만7600원 ▲20일, 2회 33만4400원 ▲23일, 1회 70000원 ▲26일, 1회 20만9000원 ▲27일, 1회 13만9600원 등으로 총 13회 249만2920원어치를 샀다.

이들 피자 구매에 쓴 비용은 같은 기간 박 시장이 사용한 전체 업무추진비의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알쏭달쏭한 거래도 있었다. 3월에는 1분 단위로 결제한 내역이 4차례, 동일한 시각에 2번 결제한 내역도 있다. 통상적인 피자 구매에서는 흔하지 않은 결제 방식이다.

/출처=박원순 서울시장 카카오스토리

또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브랜드인 D피자 가게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727만원어치의 피자를 구매했다. 이는 지난해 박 시장이 쓴 총 업무추진비 2억2002만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업무추진비 관리 부서인 총무과 관계자는 "(피자는) 시장 비서실에서 주문하는 것"이라며 "(특정 업소에서 주로 주문하는 것은) 배달 등에서 신속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문하는 것 같다. 우리가 특정 음식이나 업체를 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메트로신문이 지난 5월8일 보도한 '박원순 서울시장 하루평균 공식 밥값 117만원' 기사와 관련해 "박 시장의 1~3월 업무추진비 총액 7035만6958원 가운데 간담회에서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4049만4000원으로 전체의 57.5%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사도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 등에서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된 비용이므로, 시장이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알려왔다.

/복현명기자 hmbok@metroseoulco.kr

노후원전 폐쇄 기원 117배 퍼포먼스 노후원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울산운동본부가 8일 울산시청 광장에서 노후원전 폐쇄 기원 117배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절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메르스 병원' 추가… 24곳→29곳으로

8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감염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이 전국 6개 시도 24곳에서 5곳이 추가돼 29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8일 발표한 '시도별 병의원 명단'에 따르면 서울소재 강동경희대병원(응급실), 건국대병원(응급실), 평택 새서울의원(외래), 수원 차민내과의원(외래), 부산 사하구 임홍섭내과의원(외래) 등 5곳이 추가됐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확진자가 경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현재 메르스 감염 환자는 총 87명이다. 평택성모병원 37명, 삼성서울병원 34명, 대전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각 7명, 서울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외래) 1명, 아산시 아산서울의원(외래) 1명 등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지난달 24일 이전에 방문한 의료기관은 메르스 잠복기가 경과돼 9일부터는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외래) 1곳이 이에 해당된다.

대책본부는 또 "이날 추가 발표된 환자 23명 중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없었다"며 "평택성모병원에서의 1차 유행은 종식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환자 중 17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16번 환자와 대청병원 혹은 건양대병원에서 접촉했다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발생 환자에 평택성모병원발 환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 추가된 환자도 모두 병원 내에서 감염됐다"며 "오늘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감염환자 발생 추세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10대로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67번(16) 환자의 경우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1인실에 입원해 있다 증상을 보여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 환자의 아버지(46번 환자)도 응급실에 보호자로 체류하다 감염돼 지난 6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메르스 때문에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2508명으로 하루 전보다 147명으로 늘었다. 격리해제자는 전날까지 560명에서 583명으로 23명 증가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메르스 격리자, 유급휴가 적극 권고"

이기권 고용장관, 지방관서에 대응지침 내려보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격리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생계와 관련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메르스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날 현재 총 2508명으로 하루 전보다 147명 늘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5일 각 지방관서에 근로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메르스 대응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장관은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단체협상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규정이 없을 수도 있다"며 "메르스가 사업장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라도 메르스 격리자가 모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감안해 직업훈련 등을 받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의사나 환자 등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엔저에 이어 메르스 확산 등으로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계도 대규모 집회나 총파업 등을 자제해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 정신은 장년과 청년, 대기업과 협력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고용 실현"이라며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도 상생고용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7천571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713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은 23% 정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5대 그룹 계열사는 50% 이상 도입했다"며 "나머지 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노동계와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지침과 함께 이달 내 인문계 대졸자 취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선준기자 rsunjun@

벤츠 할부금리 9%대… 독일차 중 가장 높아

효성캐피탈, 평균실제금리 신차 9%·중고차 11% 달해

독일차 할부금융사들이 국내완성차 대비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츠 차량을 취급하는 효성캐피탈의 평균 할부금리는 신차 9.0%, 중고차 11.0%에 달했다.

이는 평균 4%대인 국내 완성차 업체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 독일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리다.

BMW의 도이치파이낸셜과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경우 신차는 8.8%와 7.2%, 중고차는 10.4%와 9.9%의 금리를 각각 적용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취급하는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신차 7.7%, 중고차 7.3%로 나타났다.

한편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신차 금리는 2.4% 수준이었다.

업계에서는 벤츠를 비롯한 독일차 할부금융사들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업체는 2%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뒤 고객의 할부금융을 대신 갚는다.

저금리로 빌린 돈을 고금리로 고객에게 빌려주는 구조다.

일례로 벤츠파이낸셜코리아는 올해 1분기 2차례에 걸쳐 13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자율은 2.2%에 불과하다.

지난해 벤츠파이낸셜코리아는 2%대 저금리로 5차례에 걸쳐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운영에 활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영업방식에 힘입어 독일차 업체와 전속금융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매출이 거침없이 늘어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2조2045억원에 영업이익 1221억원, 당기순이익 968억원을 거둬들였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62% 급증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3배 가까이 불어난 규모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경우 올해 1분기 매출 1237억원에 영업이익 96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 늘고 영업이익은 2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원금유예와 할부연장 등 각종 프로모션으로 수입차 구매 문턱이 낮아졌지만, 이는 젊은층 직장인 카푸어를 양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자가 고리이다 보니 몇 년 뒤 원금상환과 함께 돌아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수입차 업체들은 이자가 몇 %로 총 얼마고,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동탄2·위례 등 웃돈 수천만원 껑충

실수요자 '주의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고객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식 중개업자 이른바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끈질기게 따라붙는 모습도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12만2000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만8000여 건보다 25%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714건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가 늘다보니 가격도 상승 추세다. 가장 열기가 높은 곳은 단연 위례신도시다. 지난해 10월 A2-3블록에서 공급된 '위례자이'의 프리미엄은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올 봄 분양된 단지들에 벌써 평균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또 준강남권으로 주목받는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한강 조망 단지를 중심으로 3000만~6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심지어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이 공급했던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가 4000만원, 올 초 호반건설이 분양한 '송도 호반베르디움2차'가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권 거래가 늘고 가격이 치솟는 데는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타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약에 나섰던 떨어진 사람들이 분양권 거래로 눈을 돌린 것.

문제는 분양권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 행위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기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망설이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불법 전매를 해도 걸리지 않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뽐내는 떴다방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수요자가 적정한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서울시가 분양권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전매제한이 해제된 단지들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며 "그러나 투자자와 떴다방이 만든 웃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만큼, 분양권 거래를 할 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바람 잘날 없는 제2롯데월드 '또 사고'

감전사고 이어 화재발생
주민들 불안감 다시 커져

제2롯데월드몰 재개장이 너무 일렀던 걸까.

제2롯데월드몰이 지난달 12일 재개장한 후 한 달 새 인부 2명이 감전으로 화상을 입은데 이어 8일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재개장이 이른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45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제2롯데월드 엔터동 지하2층 롯데마트에서 불이나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롯데마트 식품 보관용 냉장 쇼케이스 안쪽에서 시작된 불을 직원이 옥내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했다.

이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 쇼케이스 한 대가 부분 손실돼 4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콘서트홀 8층 공사장에서 부스덕트(배관 케이스)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전기 스파크로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재개장한 직후 안전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지시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다.

8일 오전 0시 45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제2롯데월드 엔터동 지하2층 롯데마트 냉장 쇼케이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냉장 쇼케이스 한 대가 부분 파손돼 4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롯데는 이 사고 후 재발방지를 하겠다며 기존 안전사고 발생 시 2회 경고 후 퇴출하던 제도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하고, 현장소장을 교체하고 안전관리담당자를 퇴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까지 제2롯데월드를 방문해 2시간 넘게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그룹 전사적으로 안전 예방에 나섰지만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롯데월드몰 인근에 사는 송파구 주민은 "대기업이 하기도 하고 재개장도 해서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워낙 사고가 많다 보니 괜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자체 소방대가 5분 만에 진압 완료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화재가 발생한 롯데마트는 매장 내 냉장 및 냉동기계의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입사 3년 차,
발라드부터 댄스, 트로트까지
장르에 상관없이
분위기 띄우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배우지?

아직은 돈에 서툰 당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자산관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세요

(2015.3.16 기준)
연 최고 수익률 **7.45%** 세전, 500만원 한도, 체크 + 신용카드 사용 시

상담전화 1588-0365

쓰면서 모으는 똑똑한
신한명품 **CMA R+**

CMA R+로 자산관리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벤트 기간 : 2015년 3월 23일~6월 30일

한샘 피노소파 3인용 한샘 피노소파 1인용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경품은 상황에 따라 동급의 타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367호 (2015.4.6~2016.4.5)

기술금융, 질적내실 위해 투자중심 전환

금융위,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00억 규모 투자펀드 조성
'무늬만 기술금융' 일체 차단
여신심사시 TCB 결과 활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KB국민은행 구로 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기술금융 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첫 돌을 맞은 '기술금융'이 덩치는 줄이고 내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정보(TCB)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TCB평가 우수기업을 위한 2000억원 상당의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신용대출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무늬만 기술금융' 금지…투자유도 강화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신용대출 안착을 위해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성장을 유도하고 자체역량과 평가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형 기술신용(TCB) 평가 모형'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에 치중해온 기술금융을 투자로 선회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는 투자형 TCB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또 우수 지적재산권(IP)을 발굴해 투자하고 기업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주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IP 투자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성숙단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도 더 쉬워진다.

현재 금융위는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채권담보부채권(P-CBO)을 발행시 기업평가 과정에서 TCB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 기술기업의 경우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등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커진다.

아울러 TCB 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 시에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 신생기업 비중↑·기존거래기업 단순대환 배제

TCB평가 활용영역도 저축은행, 캐피탈, 정부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2금융권도 TCB로 대출을 하고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TCB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을 차단하기 위해선 기존 거래기업 단순대환을 배제하고 여신심사시 TCB 결과 반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기업은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무늬만 기술금융'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 시 '신용'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며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 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과 우수 기술기업, 초기기업 지원 비중도 늘어난다.

특히 기술금융 평가에서 양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적 평가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신용평가 신청시 우선 평가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하는 등 평가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안이 정착될 경우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2018년에는 전체 중기대출의 3분의 1이, 2020년에는 중기 대출 전반에 TCB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기술(Clean-tech)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Invention-tech)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1분기 보험사 RBC비율 302.1%

<지급여력>

현대라이프·현대하이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올 1분기 소폭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RBC비율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전체 RBC비율은 302.1%로 지난해 말 대비 9.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재무건전성 최저기준(100%)보다 3배 더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각각 9.7%포인트, 9.1%포인트 증가한 320.1%, 265.4%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금리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가용자본의 경우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잉여금(4100억원)이 확대된데다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5조7725억원)이 증가하는 등 모두 8조 9354억원이 늘었다.

요구자본도 신용·시장 위험액 확대 등으로 1조8773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보험사별로 보면 생보사 중에선 현대라이프(134.5%)와 DGB생명(168.2%), IBK연금(197.3%), 알리안츠생명(197.8%)등의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손보사 중에선 현대하이카(124.6%), MG손보(137.6%), 롯데손보(140.1%), 더케이손보(143.7%), 악사손보(145.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말 보험사 RBC비율은 보험금지급능력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며 "다만 건전성이 우려되는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과 금리변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KB국민카드, 체크카드 고객 '무료 해외여행자보험' KB국민카드는 8일 LIG손해보험과 손잡고 '무료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KB국민 체크카드(마에스트로 체크카드 제외)로 항공 요금을 전액 결제하거나 패키지 여행 상품을 50% 이상 결제한 후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해외 여행 중 발생한 ▲고도후유 장애 ▲상해의료 실비 ▲질병의료 실비 ▲휴대품 손해 ▲항공기 납치 등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국내 주식형펀드 4거래일째 자금 순유입

국내 주식형펀드가 4거래일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239억원이 순유입됐다. 공모펀드에서 188억원이 늘었고 사모펀드에서 51억원이 늘었다.

설정액은 1457억원, 해지액은 1218억원이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지난 5월 22일 이후 29일 하루만 빼고 순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54억원이 줄고 7거래일째 순유출됐다.

채권형 펀드는 309억원이 늘어 7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120억원이 증가했고 해외 채권형 펀드는 188억원이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에는 1조4705억원이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설정액은 114조9645억원, 순자산은 116조88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정경기자 jkljkl@

동부건설, 빠르면 내달 M&A 본격 돌입

재무구조 비교적 안정적·관급공사 2조원 수주
법원·산업은행 발빠른 회생계획 착수가 관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부건설이 본격적인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게 되면서 쌍용건설처럼 성공적인 재기가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다음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 100% 현금변제, 회생채권 53% 출자전환, 회생채권 47% 현금 변제(10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동의만 받으면 회생계획안은 확정된다.

매각주간사로는 동부증권, 삼정KPMG, 삼일회계법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동부증권은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동부익스프레스의 M&A를 담당하고 있다. 삼정KPMG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실사를 담당했다.

업계는 동부건설이 예정대로 회생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쌍용건설처럼 이른시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워크아웃 중이던 쌍용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난해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부동산 시장 악화와 잇딴 매각 실패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주 원인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추진했고 M&A 예비입찰 이후 2개월 만인 지난 1월 두바이 투자청과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했다.

패스트 트랙이란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당시 법원은 "쌍용건설이 해외건설을 많이 하는 대형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매각 후 쌍용건설은 유상증자 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이달 18일 회생채권을 현금 변제하고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6일 쌍용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4개월 만이다.

동부건설도 쌍용건설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달하는 동부건설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원의 발빠른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상황도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동부건설을 실사한 삼정KPMG는 이 회사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를 각각 3826억원, 4102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총자산도 총부채보다 500억원가량 더 많은 6913억원으로 집계됐다.

동부건설이 보유 중인 동부하이텍 지분(10.17%) 등 자산 프리미엄이 1000억원에 달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M&A 중인 동부익스프레스의 후순위 채권 500억원도 보유하고 있다.

영업 전망도 긍정적이다. 삼정KPMG는 동부건설이 2024년까지 신규수주 5조4000억원, 누적매출 6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급공사도 2조원가량의 수주고를 확보하고 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쌍용건설외에도 최근 동양건설산업과 LIG건설도 성공적인 매각이 이뤄진 만큼 동부건설도 예상대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이른 시일 내에 매각될 수도 있다"며 "특히 동부건설의 경우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고 1000억원가량의 자산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인수자에게는 매력적인 기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매각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확실한 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 성공 마감 한화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개발지구에 공급한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이어 평균 28.3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사진은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를 찾아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한화건설 제공

'부천3차 아이파크' 이달 말 분양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앤콘스가 이달 말 경기도 부천 약대동에서 '부천3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전용면적 ▲59㎡ 137가구 ▲69㎡ 47가구 등 전체 184가구 규모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부천시천 등 중동신도시의 생활인프라가 공유 가능하다.

중원초·중·고, 부천초, 약대초, 중흥고 등 학교 6곳이 500m 이내 거리다. 남측으로 약대근린공원이 있으며, 인근 공개공지에도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각 동은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여기에 1층을 없앤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저층 세대의 사생활을 보호했다.

부천3차 아이파크 조감도.

분양 관계자는 "5월 말 기준 중동신도시 전세가율은 60㎡ 이하가 81.95%, 60~85㎡ 이하가 80.95% 수준"이라며 "1·2단지와는 달리 전 주택형을 소형으로 구성한 만큼, 합리적인 가격과 계약조건을 제시해 전세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 쉽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부천시 중동 1155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두께 0.5㎜ 넘어야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물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샌드위치패널 등 철판의 두께도 0.5㎜를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다.

먼저 침수방지와 피난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방지해야 한다.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은 정전 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 두께의 최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 구조심의를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형석기자

한국감정원-한국지방행정硏,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MOU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오른쪽)과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장이 지난 5일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제공

잘 날던 항공株, 메르스에 날개 꺾였다

항공사 올 2분기 실적 악화
1~2주간 불확실성 최고조

전문가 "싼값에 주식 매수"
역발상 관점 투자전략 제시

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 5일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내부에 소독·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주'가 메르스 확산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메르스 확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낙폭 과대 국면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확산이 진정되는 국면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전일대비 0.26% 하락한 3만8900원에 마감했다.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전일대비 0.61% 떨어진 6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신민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영향 확인 전까지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다음주 중순 이후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취소 여객의 가시적인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과거 신종플루와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도 인바운드가 일시적으로 역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메르스 확산에 따른 여객 둔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6월 여객은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인바운드 취소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감이 존재한다"며 "급작스러운 항공권 취소는 항공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재학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메르스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며 "올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저조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송 연구원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수송량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내국인 해외여행도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다만 이전 사례를 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항공 수요 약화는 일시적인 악재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항공업 주가는 단기 정체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론 재상승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송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올 3분기 성수기 효과 여부가 관건"이라며 "올해 연간 항공업 실적은 수요 급증세와 유류비 절감 효과로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제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발병으로 항공 수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가 본격화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스 발병 당시에는 여행 금지·주의 조치와 함께 인천공항 기준 항공 수요가 전년대비 30% 줄었다. 당시 홍콩 케세이퍼시픽의 경우 사스 확산 우려가 본격화된 지난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수송 수요가 월평균 전년대비 45% 감소했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의 주가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류 연구원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최악의 시점에선 '매수'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1~2주가 메르스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역발상 관점에서 하락폭이 컸던 항공주를 싼값에 사는 것도 좋은 투자전략"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엘리엇 '합병 저지' 러브콜에 국민연금 선택은?

엘리엇,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서한
국민연금 "안정적 기금 운용 위한 결정 할 것"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 5일 삼성물산 주요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반대 세력 규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엘리엇이 단순 차익 실현으로 '먹튀'를 할 것인지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향방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9.9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삼성SDI(7.18%), 삼성화재(4.65%) 등을 합쳐 13.99%에 불과한 만큼 국민연금의 대응은 이번 합병 문제에 있어 외국인 지분 다음으로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고민은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합병이 제일모직에 비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합병에 찬성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합병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하기에는 주가 하락에 따른 수익률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엘리엇의 지분 매입 공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7만원대까지 뛰어 차익 실현할 수 있음에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7234원을 행사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지분 9.98%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행동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6일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몸집이 큰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만큼 주총 전에 지분을 대거 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합병에 적극적 반대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라며 "연기금이나 다른 투자자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반대하는 이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거래일보다 5600원(7.36%) 내린 7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합병안을 두고 지분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급등했던 주가는 이날 장 시작 당시 8만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나오며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이날 닷새 만에 '팔자'로 돌아서 삼성물산 주식 4만2875주를 순매도했다.

주가의 향방과 합병 가능 여부를 결정할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주주확정 기준일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정경기자 jkljkl@

잇단 악재… 시름 깊은 삼성전자

| 마켓인사이트 |

법인세율↑·주당순이익↓
관련 부품업체 주식 하락

삼성전자 주가가 3거래일 만에 또 하락세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신(新)경영' 의미를 되새기며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등 분위기반전에 힘쓰고 있으나 현실은 여의치 않다.

올해 법인세가 인상될 예정인데다 갤럭시S6 판매 부진이 관련 부품업체들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1%(2만7000원) 내린 131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하락세와 함께 코스닥시장에서는 관련 부품업체 주가 약세를 보였다.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인 일진디스플레이는 전날보다 6.39% 내린 1만250원을 기록했다. 카메라모듈 제조업체 파트론(-1.46%), 연성회로기판(FPCB) 업체 인터플렉스(-0.33%), 블루콤(-0.35%)도 동반 하락했다.

◆ **갤럭시S6 판매량 '의문'**

삼성전자는 지난해 206조206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9.83% 하락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25조251억원으로 31.96%, 당기순이익은 23조3944억원으로 23.23% 악화됐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썩 좋지 않다. 매출액은 47조117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1% 내렸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29.59%, 38.92% 하락했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갤럭시S6 판매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 **2Q 실적…기대 이하 전망**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밝지 않다. 특히 올해 유효 법인세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상 법인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당순이익(EPS)은 떨어지게 됐다.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써 주당순이익이 높다는 것은 경영실적이 양호함을 뜻하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유효 법인세를 지난해 16.1%에서 올해 23.8%로 크게 상향한다"며 "지난해는 연말 해외법인 법인세 환급 효과가 있었던 반면 올 들어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두산엔진, 조선업 불황에 안절부절

올 1분기 매출액 1441억2200만원… 전년比 12.6%↓
대우조선·삼성重 선박 수주에도 실적개선 역부족

두산엔진이 조선업 불황에 안절부절이다. 최근 삼성중공업과 선박엔진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를 알렸으나 조선업 관계자들은 여전히 두산엔진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엔진은 작년 영업손실 39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순손실은 422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영업손실 118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441억22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6%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77억2400만원으로 누적 적자가 지속됐다.

주요 고객사인 중국 조선업체의 선박 인도량과 발주량이 감소한 데다, 고객사의 납기 지연 요구가 더해지면서 실적은 악화됐다.

적자가 계속되자 주주들도 발을 빼는 모양새다. 두산엔진 지분 5600만주(8.06%)를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부터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기업차원에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나 두산엔진 주가가 예측보다 낮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수주 금액은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이 대량으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선 장착용 신형 ME-GI엔진의 2015년도 수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주에는 삼성중공업과 69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2분기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도에는 2013년 이후 저가수주한 선박 엔진이 매출에 반영된다"며 "올해 수주금액이 영업이익으로 포함되는 시기는 실제적으로 2~3년 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재무 상태 악화에 두산엔진은 최근 외부 회계법인에 수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재무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했다.

두산엔진 관계자는 "재무컨설팅은 현재 마친 상태로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이나 인력 부문 재편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엔진 본사 전경.

'삼성 노트북-인텔 인사이드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학생 배틀 스프링' 대회에 참가한 전남과학대 '돌하르방' 팀이 경기에 사용된 '삼성 노트북 5'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e스포츠, 노트북 시대 열렸다

삼성 노트북 5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대회 첫 경기용 PC 선정

삼성전자는 '삼성 노트북 5'가 한국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게임 대회에서 최초로 경기용 PC로 사용됐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공식 e스포츠 대회에서 노트북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노트북 5가 고성능 게임에 필요한 사양을 충분히 갖춰 데스크탑 사용이 일반화 됐던 e스포츠 경기에서 대회용 PC로 선정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 노트북 5(모델명 : NT500R5K-X52M)는 올해 1월에 출시된 제품으로 39.6㎝(15.6인치) 화면에 인텔 코어 i5를 탑재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다.

이 제품은 풀HD LED 디스플레이를 지원해 햇빛이 강한 야외나 불빛 아래서도 시인성이 높다. 엔비디아 지포스 840M 그래픽카드를 탑재해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즐기기에 최적의 사양을 갖췄다. 최대 10.5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도 장점 중 하나이다.

한편 '삼성 노트북 5'로 8강전 부터 결승전까지 경기를 진행한 '삼성 노트북-인텔 인사이드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학생 배틀 스프링' 대회는 총 40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국내 유일의 공식 대학생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다.

전날 서울 강남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는 전남과학대학교의 뉴메타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조한진기자 hjc@

삼성전자, 이브 베하 디자인 SUHD TV 나온다

'82S9W' 세계 첫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이브 베하와 협업해 제작한 SUHD TV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브 베하와 협업해 2015년 SUHD TV의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인 SUHD TV '82S9W'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82S9W는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TV를 벽에 걸거나 한 쪽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공간 어디나 놓일 수 있는 제품으로 메탈 큐브 위에 스크린을 얹은 조각상 같은 디자인이 TV를 예술 작품의 경지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1대9 비율의 82인치 커브드(곡면) 스크린은 다른 화면비의 영상이 입력돼도 자동으로 전체 화면에 영상이 가득 차게 보여주는 21대9 자동 업스케일링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SUHD만의 색감과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전원이 켜지면 은은한 빛을 내는 메탈 큐브는 강력한 베이스를 제공하는 서브 우퍼가 내장돼 있어 영화관에 있는 듯한 웅장한 음감을 느낄 수 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SUHD TV 82S9W는 9일부터 주요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출고가는 2500만원이다. /양성운기자 ysw@

LG전자 올레드 TV, 해외서 호평 잇따라

"세계 TV 중 가장 아름다워"

LG전자는 울트라 올레드 TV에 해외 매체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포브스는 LG 울트라 올레드 TV(55EG9600)를 "실제로 존재하기에는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출시된다는 소문만으로 끝날 줄 알았다"며 "놀라운 명암비와 생생하고 깊이 있는 블랙 컬러를 갖춘 이 제품은 올레드의 잠재력을 입증한다"고 호평했다.

또 포브스는 5.97㎜ 두께에 "이렇게 얇은 두께에 울트라HD 화질을 구현한 것은 마법과 같다"며 "우아한 곡면과 초슬림 디자인은 전세계 시장에 출시된 TV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극찬했다.

영국 IT전문매체 트러스티드 리뷰는 LG 울트라 올레드 TV(55EG960V)에 10점 만점을 줬다. 이 매체는 LG 울트라 올레드 TV로 인해 올레드의 미래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호평했다.

영국 유명매체 테크 레이더는 LG 울트라 올레드 TV(65EC970V)에 "이 제품의 깊은 블랙 레벨과 명암비, 울트라HD 해상도는 최고의 화질을 선사한다"며 5점 만점을 부여하고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트윈파워 디젤 엔진 고른 힘… 코너링 '가뿐'

[시승기] BMW 뉴 1시리즈

150마력 최고 시속 212km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
도심운행 효율성 개선
3000만원대 가격도 매력

향상된 마력 덕분인지 기존모델보다 치고 나가는 힘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1995cc 4기통 트윈파워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돼 최고 150마력의 강력한 힘을 낸다. 최고 속도는 시속 212km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8.1초로 BMW 3시리즈와 비슷하다.

액셀을 밟는 순간 신형 4기통 디젤 엔진의 힘이 차체에 고르게 분배돼 부드러운 주행성과 코너링이 인상적이었다.

BMW 뉴 1시리즈. 가속과 감속을 수없이 반복하는 도심 운전 환경 속에서 2030의 젊은 세대가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차다. BMW 코리아는 뉴 1시리즈를 8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이날 시승은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출발, 올림픽대로를 달려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에 이르는 30여분 거리의 짧은 구간이었다. 승차감, 가속성, 안정성 등을 경험해 보고자 가속 기회는 놓치지 않고 최대한으로 속도를 냈다. 32.7kg·m의 최대 토크는 기존 모델보다 7마력이 향상된 150마력의 최고 출력 성능을 이른 시간에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후륜 구동이 장점을 두루 갖춘 차이지만 동급의 경쟁 차종보다 100kg가량 무게가 가볍고 작은 차체 탓인지 고속주행 시 작은 핸들 움직임에도 차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올림픽대로에 접어들기 전에는 컴포트 주행모드로 1시리즈의 주행성을 시험해봤다. 부드러운 차선 변경과 안정적인 승차감이 느껴졌다.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시가지 구간의 운행은 효율성이 개선된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엔진 회전 수 상승을 줄였다. 올림픽대로로 나서자 스포츠모드를 작동시켰다. 동시에 속력을 높이자 500m 가량 떨어진 앞차와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속도를 유지하며 차선 변경을 통해 차들을 앞질러 나갔다. 즉각적인 핸들의 응답성이 전해졌다.

뉴 1시리즈는 전, 후, 측면 외관 디자인이 대폭 변경됐다. 전면은 넓어졌고 후면은 'L'자 형태의 라이트가 장착됐다. 측면 디자인은 긴 보닛과 짧은 오버행, 긴 휠베이스 등 BMW의 전형적 차체 비율이 적용됐다.

실내는 불필요한 센터페시아(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조장치) 조작버튼을 최소화 했다. 여기에 디자인은 붉은 선과 검은색이 어우러졌다.

또 6.5인치 디스플레이와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응급전화, BMW 텔레서비스를 포함한 커넥티드 드라이브 기능 등이 적용됐다.

뉴 1시리즈의 연비는 복합 17.4km/ℓ, 고속 19.9km/ℓ, 도심 15.7km/ℓ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1g/km다. 뉴 1시리즈 118d 스포츠 라인의 가격은 3890만원에 책정됐다. 17인치 경합금 휠과 커넥티드 드라이브가 포함된 뉴 1시리즈 118d 스포츠 런치 패키지는 3950만원이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LG전자가 일본시장에 출시한 '디즈니 모바일 온 도코모 DM-01G'. /LG전자 제공

LG전자, 디즈니로 日 여심 공략

디즈니 시리즈8 'DM-01G'
배경·이모티콘·게임 등 3만개 콘텐츠 무료 제공

LG전자가 일본시장에 '디즈니 모바일 온 도코모 DM-01G'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디즈니 모바일 온 도코모' 시리즈는 일본 이동통신사업자 'NTT도코모'와 '월트 디즈니 재팬'이 디즈니의 세계관을 스마트폰에 담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디즈니 모바일 온 도코모' 시리즈의 8번째 모델이다.

이 제품은 '신데렐라' '미키 마우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겨울왕국' '인어공주' 등 5개 디즈니 작품 세계를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사용자경험(UX)에 담았다.

LG전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적용한 '미키 윈도우 커버'도 제공한다. 미키마우스 모양의 윈도우에는 스마트폰 동작에 따라 재미요소를 최대한 살린 애니메이션이 구현된다.

특히 케이스를 열지 않아도 날씨, 재생중의 음악 등 실시간 정보를 각 디즈니 작품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UX로 즐길 수 있다. 이모티콘, 게임 등 약 3만개의 디즈니 UX 콘텐츠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5.2인치 풀HD IPS디스플레이와 레이저오토포커스, 제스처샷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파우더 블루, 퓨어화이트, 프리티핑크 총 3가지 색상으로 일본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할 예정이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디즈니 모바일 온 도코모 DM-01G 출시는 일본 이동통신사업자, 세계적 문화 콘텐츠 회사, 글로벌 제조사가 합작한 제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G시리즈'의 강점을 확대 적용한 다양한 특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진기자 hjc@

수입차, 휴가철 앞두고 판촉 경쟁 불꽃

무이자 할부·주유권 등 다양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자동차 업계가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판촉 행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이달 동안 푸조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푸조 2008과 3008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휴 캐피탈을 통해 푸조 2008 펠린L(3090만원)을 사면 36개월 또는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의 50%를 먼저 내면 36개월간 매달 약 43만원을, 30%를 내면 24개월간 약 9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푸조 3008럭스 팩' 악티브(3990만원)는 선수금 35%를 내면 60개월간 약 43만원의 할부금으로 차를 살 수 있다. 알뤼르(4390만원)는 선수금 없이 36개월간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프리미엄 세단 S80 D4프리미엄(5830만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유예리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차량가격의 30%를 먼저 지불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37만9000원을 나누어 내면 S80 D4 프리미엄을 운행할 수 있다.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200만원의 주유비를 지원한다.

XC70 D4 구매 때는 볼보 정품 루프박스 패키지 또는 스캇 산악자전거 패키지 중 한 가지를 무상으로 증정한다. 여기에 150만원 상당의 주유권도 함께 제공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내달 말 까지 전국 28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세단 제타와 4도어 쿠페 CC 두 모델의 전 라인업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 기간에 사전 예약 후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유상수리를 받는 제타와 CC 고객은 20% 할인된 가격에 순정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하는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된 3명에게는 100만 원 상당 여행상품권과 폭스바겐 골프백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정용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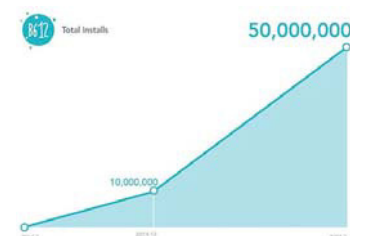
전세계 5000만건 다운 받았다

네이버 라인의 셀피 전용 앱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지난해 8월 출시한 어플리케이션 'B612'의 전 세계 다운로드 수가 5000만건을 넘어섰다.

라인은 셀피(Selfie)전용 카메라 앱 'B612'의 전세계 다운로드 수가 지난 5월 23일 기준 5000만건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셀피는 셀프카메라(셀카)를 일컫는 영어식 표현이다.

B612는 다양한 필터와 효과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피 전용 카메라 앱이다. B612는 앱 실행과 동시에 셀카 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화면 슬라이드로 필터를 변경하는 등 셀카 촬영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췄다. B612는 셀피 붐을 타고 지난 2월 6일 전세계 다운로드 수 2000만건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라인은 필터와 콜라주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용 국가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업데이트 이후 B612 인기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라인의 셀피 앱 'B612'의 전 세계 다운로드 수가 5000만건을 넘어섰다. /라인 제공

또 B612는 전세계 월간 이용자 수(MAU) 3000만(총 다운로드 수의 60%)을 기록하며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주 쓰이는 앱으로서의 입지도 견고히 하고 있다.

라인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B612를 통해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문경기자 hm0108@

재계, 행사 연기·재택근무 등 메르스 대응 분주

현대·삼성·LG 등 긴급예방대책 마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재계도 일파만파 긴급대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8일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전사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현대차그룹은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각각 울산공장·화성공장 등에 급파해 대규모 사업장의 메르스 대책 현황을 점검했다.

또 각 계열사와 협력업체에도 비상대응 체계 가이드라인·예방법 등을 숙지 대응토록 조치하고 전사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국내외 행사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연기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중동지역에서 복귀하는 임직원에 대해 2주 동안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회사는 앞으로 중동지역에서 복귀하는 임직원에 대해 메르스 최대 잠복기간인 2주 동안 재택근무(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방역물품(발열체크기, 손세정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최근 한 달 이내 중동에서 복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중동지역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 700여명이 근무 중인 중동지역 공사 현장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지정병원을 마련하는 한편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메르스 대책으로 대규모 행사 자제, 임직원 고열 체크, 중동 출장 자제 등의 기본 수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서울 서초 개발센터와 평택, 구미 사업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도 메르스 증상에 대한 정보를 임직원에게 안내하고 중동 지역 출장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LG유플러스는 유필계 CR전략실장(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메르스 대책반을 구성해, 상황 종료 시까지 전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메르스 대책반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대외적으로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반에 LG유플러스 직원을 파견하고 핫라인을 구성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요청이 있을 경우 메르스 의심환자의 동선파악을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등 통신서비스를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금호고속은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 운행 중인 모든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내 특별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권역 영업소에 방역 마스크 50~100개와 온도계를 비치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동 발 인천행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특별 기내 방역에 들어갔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SK텔레콤의 직원이 'T월드다이렉트'지점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온라인서 휴대폰사고 지점서 개통

SKT 'T월드다이렉트' 편의성 강화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공식 온라인숍 'T월드다이렉트'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SK텔레콤은 T월드다이렉트 이용 고객의 구매 행태를 분석해 고객이 상담·결제·배송·개통 등 구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T월드다이렉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T월드다이렉트와 수도권 5개 지점(강남·을지로·분당·일산·수원)을 연계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O2O(Online to Offline) 방식의 '지점 픽업 서비스'를 이달 중 5대 광역시로 확대한다. 올 3분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대리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점 픽업 서비스는 온라인 T월드다이렉트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근처 오프라인 지점에서 익일 개통·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휴대폰 분실신고를 한 고객이 T월드다이렉트 상담센터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휴대폰을 당일 배송해주는 '분실고객 당일 퀵 서비스'도 지난 달부터 서울에서 시행 중이다.

SK텔레콤은 T월드다이렉트 구매문의 상담센터를 이달부터 기존 09~18시에서 09~21시로 3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순부터 'T월드다이렉트'에서 휴대폰 구매시 OK캐쉬백 포인트를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성카드와 제휴해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와 삼성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활용하는 프로모션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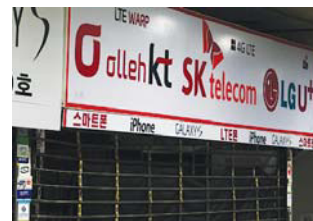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앞으로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를 추진해 단말 구매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hm0108@

악! 메르스… 통신 유통업계도 전전긍긍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한지 19일이 지나면서 휴대폰 유통점들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줄어든 손님에 더해 메르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이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주변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최문형(가명)씨는 "주변 마트며 음식점, 가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며 "단통법 시행에 더해 메르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점점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의 여파로 8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와 경기도 7개 도시 등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1869

곳이 휴교하는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A이통사 판매대리점주는 기존보다 매장을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점주 박모씨는 "판매대리점 주는 자영업자인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메르스 대책도 일부 직영점에만 해당된다"며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사측에서 파악되는 대리점 외에는 손 세정제 등 지급하는 지원품도 국한된 모습을 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메르스 대책반을 구성해 1500여 개에 달하는 직영점과 대리점 등 고객창구 직원들에게 고객 대면 전 손세정 실시 등 철저한 위생관리 준수를 지시한다. SK텔레콤과 KT도 메르스 대응 체계 가이드와 고객 응대 시 구체적 예방 수칙를 배포하고 있다. /정문경기자

LGU+ "해외로밍 3명 뭉치면 하루 8000원"

'투게더 할인 요금제' 출시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 시 3명 이상만 뭉치면 하루 8000원에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요금제가 출시됐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해외 여행시 동행인과 함께 신청하면 각각 요금을 할인해 주는 '투게더 할인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홍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이번 요금제는 2인이 같이 무제한 데이터 로밍에 가입하면 기존 1일 1만원에서 각각 1500원이 할인되며 3인 이상이 신청하면 기존 요금 대비 각각 2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전 세계 130개국에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고객 2명의 경우 기존에는 각각 1만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로밍 요금제 가입을 통해 각각 1500원씩 할인된 8500원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3명은 각각 최대 2000원이 할인된 8000원씩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가입은 LG유플러스의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가입 전 동행임을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요금제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성수기에 동행 고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우선 3개월 프로모션으로 한시 운영된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정문경기자

‘윤리경영’ 유한킴벌리, 대리점주에 ‘갑질’

대리점 간 장려금 등 차등 혜택 대리점보다 싼 값에 판매도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사진)가 대리점주 간 차별 혜택을 주는 등 갑질 행태로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대리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주로 오프라인 채널에 물건을 대는 지역거점 대리점과 온라인 대리점을 따로 두고 차등 전략을 세워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대리점들은 지역거점 대리점의 매입가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본사가 온라인 대리점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약 7년 간 경기도에서 대리점을 운영했다는 A씨는 "본사가 특정 대리점에 유리하도록 판매 전략을 세웠다"며 "지난해까지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반품 등으로 손해가 많아 오픈마켓에서도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일 방송된 '시사 2580'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방송에서는 대리점들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장려금을 안 주고, 그 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 물건을 팔 수 없는 교묘한 구조를 만들어 본사가 사실상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들이 매입하는 가격보다 헐값에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 직접 물건을 대고 있다고 대리점주 측은 주장했다. A씨처럼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 지역거점 대리점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유한킴벌리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식대리점이 옥션에서 판매하는 0~4단계 하기스네이처메이드 3팩은 할인가 5만400원으로 이는 지역거점 대리점이 매입하는 가격 보다 10% 가량(1단계 기준) 저렴하다.

A씨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경품 등을 붙여 판매하는 온라인 대리점도 있어 이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기저귀는 온라인 판매가 상당한데 일부 대리점에 특혜를 줘 손해가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기저귀를 사서 파는 것이 이익인데도 목표 때문에 하는 수없이 더 비싼 값으로 기저귀를 유한킴벌리에서 공급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판매 목표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매출을 기준으로 최소 90%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에 미달할 경우 지역거점 대리점에 돌아가는 장려금은 최대 1%에 불과하다.

반면 인터넷대리점은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9.9%의 장려금을 받는다. 목표 설정도 중간에 조정이 가능하다.

일부 상품은 아예 지역거점 대리점에 주지 않았다. 최근 출시된 여름 한정판 '하기스 숨쉬는 썸머기저귀(2단계 공용 58매*3팩)'와 '썸머팬티(4단계 공용 50매*2팩)'는 티몬에서 모두 3만6900원에 판매 중이다. 언론을 통해 초기 물량 중 일부가 품절됐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대리점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대리점주로부터 지난해 신고가 들어와 그 내용을 기초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홈플러스, 매각전 개인정보 피해자 구제하라"

소비자단체협 "보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가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의 매각 절차 착수와 관련, "매각 시작 전에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8일 "최근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등으로 점유율이 하락돼 매각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소비자는 방치한 채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려온 매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약 2406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후 보험사에 매각해 231억7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는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을 기소했다.

협의회는 "사건 초기부터 협의회와 10개 소비자단체가 진심어린 사과와 조속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를 촉구했으나 홈플러스는 매번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매각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한 피해 소비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매각설은 지난 5일 로이터·블룸버그 등의 외신을 통해 불거졌다. 경영악화에 빠진 홈플러스의 100%주주 영국 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 주관사로 홍콩 HSBC를 선임하고 일부 사모펀드 운영회사에게 매각설명서를 보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김성현기자 minus@

"세계 각국 맥주 병뚜껑으로 만든 대형 지구본" 8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세계 각국의 맥주 병뚜껑으로 만든 대형 지구본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제공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협경제대표 재선임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사진)는 8일 대의원회를 열어 농업경제대표이사로 이상욱(57·사진) 현 대표이사를 재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이 확정됐다.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년간이다.

이 대표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1979년 농협대학교를 졸업했다.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 중앙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서울 양곡공판장장, 영등포·강서 공판장장, 교육연수부장, 고양유통센터 사장, 농촌자원개발부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옥션 '인증 수입 중고차관' 온라인몰 오픈

오픈마켓 옥션이 BMW와 미니(MINI)의 공식 딜러사인 코오롱주식회사와 아우디 공식 딜러사인 위본모터스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 '인증 수입 중고차관'을 온라인몰 단독으로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인증 수입 중고차관'에서는 3개 브랜드 수입차의 공식 딜러사가 엄격한 품질보증 절차를 거친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BMW와 미니는 총 72개 항목의 정밀점검을 통과한 차량만 매물로 내놓으며 관련 정비 이력도 제공한다. 인증 중고차는 최대 12개월 보증서비스 등 신차 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은 옥션 인증수입중고차관에서 차종별로 각 브랜드 딜러를 통해 상세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매를 결정하게 되면 옥션에서 계약금을 결제한 뒤 전시장을 방문해 차량을 구매하면 된다.

옥션 버티컬사업실 문영구 이사는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했다 오히려 거액의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며 "최근 수입차 시장 확대와 중고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공식 수입차 딜러사에서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를 찾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롯데, 워킹맘 대상 수기 공모전

일·육아 병행 여성 지침서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8일부터 7월31일까지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전국의 워킹맘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워킹맘으로서 느낀 고민과 일상 이야기,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복귀한 사례, 현재 워킹맘에게 도움이 되는 가사 분담의 노하우 등을 담은 내용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분량은 A4 5매 내외이다.

롯데는 우수작을 선정해 대상 1명에 300만원, 금상 2명에 200만원, 은상 3명에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모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120명에게 롯데푸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작에 선정된 6편은 워킹맘을 위한 자기개발서에 게재된다. 자기개발서는 롯데가 지난해 8월에 롯데그룹 내 육아휴직자들을 위해 발간한 가이드북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의 후속작으로 올해 10월에 출간할 예정이다.

응모는 전자메일(dreamingmom@lotte.net)을 통해 진행되며 당선 결과는 8월20일 롯데그룹 공식홈페이지(www.lotte.co.kr)를 통해 공개된다. 공모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2670-6196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유통가, 메르스에 희비교차

百·대형마트 등 매출 급감 온라인몰·배달앱은 급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꺼려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식 매장 등의 매출은 눈에 띄게 준 반면 온라인몰과 배달앱 등은 매출이 늘며 특수를 누리고 있다.

8일 옥션이 지난 1~7일까지 위생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4859%, 42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세정용품도 전년보다 171% 늘었다.

G마켓의 마스크 판매도 전년 대비 248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손세정제는 4913%, 물비누는 193% 증가했다..

신선식품의 판매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옥션이 식품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는 전년비 72%, 생선류는 100%, 반찬류는 126%, 즉석·가공식품은 55% 신장했다.

G마켓에서도 해산물 판매가 161% 늘었고 닭고기 85%, 오리고기 41% 등 신선식품 판매가 증가했다. 라면, 통조림, 즉석밥 등 가공식품의 판매도 45% 늘었다.

옥션 관계자는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피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점이 판매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제공

롯데마트몰 매출도 지난 6일 전주(지난달 30일) 대비 45.3% 증가했다. 이마트몰 매출 역시 1~6일 전년동기 대비 59.5% 급증했다.

외식을 꺼리면서 배달 음식도 인기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달 첫 주말(6~7일) 배달 주문은 43건으로 지난달 평균 37만건보다 23% 증가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주말 평소 외식을 즐기던 사람들이 메르스의 영향으로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시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메르스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자의 '메르스 공포'를 줄이기 위해 매장 내 위생을 강화했지만 메르스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 6일 매출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토요일에 비해 0.7% 하락했다. 지난 1~6일 매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5%나 줄었다. 현대백화점도 6일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0.9% 하락했고, 1~6일 매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 5.3% 감소했다.

이마트의 1~6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했다. 특히 메르스 주요 발생지역인 동탄점의 경우 28%, 평택점의 경우 25%로 급감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6~7일 매출이 12.4% 줄었다.

외식업계도 매출이 감소했다. 빕스·계절밥상·비비고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의 지난 6~7일 매출은 전주대비 4~5% 정도 줄었다. 자연별곡을 운영하는 이랜드도 같은 기간 매출이 전주 보다 3% 정도 줄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환자 증가에도 주중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뚜레쥬르, 中 광저우·구이저우성 진출

직영·MF 방식 혼용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의 베이커리 뚜레쥬르는 중국 남서부의 광저우(廣州)와 구이저우(貴州) 성에 각각 진출했다고 8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중국 시장에서 직영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두가지 방식을 혼용해 진출했다.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가 광저우와 구이저우 지역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광저우의 뚜레쥬르 1호점은 중국 제3의 도시로 손꼽히는 광저우의 대형 주상복합 쇼핑몰 '시청두회(西城)' 1층에 문을 열었다. 이 곳은 7만1000㎡의 면적을 자랑하는 초대형 쇼핑몰로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상주인구만 4만명을 넘는다.

중국 내 10번째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 체결로 진출한 구이저우성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 10.8%를 기록해 중국 31개 성급 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설빙, 中 서남지역 진출… 5년내 60곳 개점

빙수전문 프랜차이즈 설빙(대표 정선희)이 중국 내륙으로 진출한다.

설빙은 중국 서남지역 식품브랜드 대리권을 소유한 대형 벤더사 '서안명주식품유한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설빙은 쓰촨(四川)성, 산시(陝西)성, 충칭(重慶)시에 진출한다. 올해 8월 사신성 서안1호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장을 6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설빙은 지난달 상하이(上海) 홍첸루(紅泉路) 거리에 해외 1호점을 낸 바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오픈한 상해1호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중국 내 설빙과 한국식 디저트메뉴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며 "중국 내륙을 대표하는 서남지역에 설빙이 빠른 시간 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라거' 맥주 제치고 '밀' 맥주 1위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올 1~5월 자사 세계맥주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밀맥주인 독일 파울라너가 라거 계열을 제치고 단품 기준 세계맥주 매출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2위는 밀맥주인 벨기에의 호가든이 기록했으며 3위는 흑맥주인 아일랜드 기네스가 차지했다.

에일 계열 맥주들은 밀맥주에 비해 매출이 저조했다. 지난해까지는 라거 계열인 일본 아사히와 네덜란드 하이네켄이 각각 1·2위를 기록했었다. 에일 계열 밀맥주가 세계맥주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형마트·편의점·크래프트 비어 펍 등을 통해 세계맥주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늘며 라거에 편중된 기호가 다양해 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홈플러스 세계맥주 매출 내 라거 맥주 비중은 지난해 64.6%에서 올해 57.2%로 감소했다. 반면 에일 맥주 매출비중은 지난해 24.6%에서 올해 31.1%로 오르면서 30%대를 돌파했다. 혼합 맥주도 10.8%에서 11.7%로 늘었다.

/김성현기자 minus@

색다른 폴라볼 담배 '레종 아이스팟'

KT&G(사장 민영진)는 깔끔한 공간필터에 색다른 시원함의 폴라볼(Polar Ball) 캡슐을 적용한 '레종 아이스팟(RAISON ICEPOT)'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레종 아이스팟은 흡연 중 쉽게 물러지지 않는 단단한 공간필터가 적용돼 보다 깔끔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또 원하는 시점에 필터 속 폴라볼 캡슐을 터뜨리면 깔끔한 맛이 시원한 맛으로 변해 담배 한 개비에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주춤하던 건강기능식품 다시 '활짝'

'가짜백수오' 충격딛고 반등 면역력 강화 상품 매출 급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공포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건기식에 대한 불신이 생겨 구매 감소로 이어졌지만 메르스 불안이 확산하면서 반등하고 있다.

8일 KCG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 정관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17% 늘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은 41% 급증했다.

정관장 제품 가운데 수량기준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홍삼정 등 홍삼농축액이다. 또 어린이용 홍삼제품인 홍이장군이 28%, 청소년용 제품인 아이패스가 50% 나 늘었다.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서도 건기식 매출이 상승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건강상품군 매출은 20.7% 늘었다. 이 기간 홍삼 매출은 37.4% 신장했고 비타민군도 22.9% 늘었다.

메르스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온라인·홈쇼핑에서도 건기식 매출이 늘었다. G마켓은 최근 일주일(1~7일) 건강기능식품이 전주 대비 13% 늘었다. 같은 기간 비타민 54%, 어린이건강식품 49%, 홍삼캡슐 130% 증가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체력보충을 위한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메르스 이슈가 맞물리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기업 쿠팡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영양보충제 판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5% 늘었다. 같은 기간 비타민은 30%, 기타 건강식품은 1% 증가했다.

위메프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토마토와 홍삼 매출이 각각 85%, 231% 늘었다. 개인 위생만큼 평소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회사 측은 풀이했다.

'가짜 백수오'로 홍역을 치룬 홈쇼핑업계도 바빠졌다. 현대홈쇼핑은 메르스 발병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건기식 매출이 12% 가량 늘었다. 롯데홈쇼핑은 홍삼·비타민 등 면역력 강화 상품의 방송 분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

주얼리산업 인재육성 팔 걷었다

장학금 1억6000만원 기탁 관련 전공자 2개 학기 지원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호)은 지난 5일, 귀금속·주얼리 관련 전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 푸른등대에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국내 주얼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국내 주얼리 관련 전공자에게 주는 것이다.

장학생은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이번 지원은 국내 주얼리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이재호 이사장(왼쪽)과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이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1억 6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내용의 기탁식을 체결했다.

이재호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앞으로도 국내 주얼리 산업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재양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재단 장학금의 선발 공고는 2015년 7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간호부, 계절별 맞춤 봉사활동

이대목동병원 간호부(간호부원장 변은경·사진)가 '이화와 함께 하는 사계(四季)'라는 주제로 원내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화제다.

이대목동병원 간호부는 고객공감위원회가 주관하여 원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이화 간호 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15개 병동에서 43건의 봉사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이 중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6개의 봉사 아이디어를 선정해 '이화 간호愛 사랑 더하기'라는 슬로건 아래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 '이화와 함께하는 사계(四季)'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며 이에 맞춰 1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부는 최근 '사랑의 씨앗'이라는 봄 테마로 간호사들이 매달 모은 봉사기금 중 일부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여름에는 '사랑의 샘물'(서울모자의 집 자원봉사, 행사 후원), 가을 '사랑의 열매'(손과 발이 웃는 날, 1004 day 행사), 겨울에는 '사랑 나눔'(신생아 모자 뜨기, 아로마 향초 나누기)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복현명기자 hmbok@

박준뷰티랩, 명동점·김해내외점 오픈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박준뷰티랩이 지난달 명동점을 오픈한데 이어 김해지역 4번째 지점인 김해내외점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명동점은 밀레오레 가까이에 있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호텔이 있어 관광객 매출 또한 기대되는 곳이다.

지난 5월 오픈한 김해내외점. /박준뷰티랩 제공

지난달 말 오픈한 김해내외점은 김해지역의 헤어 트렌드를 섭렵하고 있는 이재철 원장이 새롭게 연 매장이다.

주요 고객인 대학생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한 헤어 변신을 원하는 젊은 층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두피마사지 서비스는 물론 모발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고객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비치하는 등 휴식공간도 마련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당뇨환자 주 1회 인슐린 투약시대 '성큼'

한미약품, 비임상 결과 발표 인슐린 신약개발 가능성 확인

인슐린 치료의 단점을 극복하고 투약주기를 주 1회까지 연장하는 복합 인슐린신약의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지난 7일 미국 보스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회 미국당뇨병학회(이하 ADA) Scientific Session에서 개발 중인 지속형 복합 인슐린신약 LAPSInsulin Combo에 대한 비임상 연구결과를 구연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LAPSInsulin Combo는 한미약품이 주1회 투여 인슐린으로 개발 중인 LAPSInsulin115와 최대 월1회 투여가 가능한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LAPSCA-Exendin4)를 결합한 당뇨신약이다. 바이오의약품의 단점인 짧은 반감기를 극복하는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가 적용됐다.

지난 7일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제75회 미국당뇨병학회서 한미약품이 신약 비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공동연구자인 Micheal E. Trautmann 의학박사(Profil institute)가 발표했다. 두 약제의 결합에 따른 치료적 장점과 우수한 효력,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 쇼크와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는 비만형 당뇨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LAPSInsulin115와 에페글레나타이드, LAPSInsulin Combo 각각의 약효와 혈당조절 능력, 체중감소 효과 등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일 용법에서 LAPSInsulin Combo로 투여물질을 변경할 경우 빠르고 강하게 당화혈색소(HbA1c)를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는 고농도의 당과 지질에 노출되면 스스로 사멸하는데 LAPSInsulin Combo는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해 췌장 베타세포 보존효과 역시 뛰어나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최치선기자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맥주파티'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이 12~14일까지 '더 라운지'의 야외 가든에서 '비어 크루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비어 크루즈' 페스티벌은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이 선보이는 동대문의 새로운 문화 공연 프로젝트의 두번째 시리즈다.

국내의 버스킹 문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버스킹 플레이'와 함께 '밴드 코로나', '케이오케이' 외 9개 팀의 버스커 밴드가 참여한다.

하이네켄, 글로벌 크래프트 코리아 등 10개의 맥주업체가 참여해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수입 맥주의 무료 테이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입한 티켓의 맥주 교환권을 '더 라운지'의 부스에 제시하면 지정된 맥주로 교환해 준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더위 얼리는 피문어 곤약냉채 맛보세요"

강강술래 시즌 메뉴 2종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고객들이 초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여름시즌 메뉴 2종을 선보였다.

강강술래는 여름이 맛있게 무르익는다는 의미의 '여름미식(美食)'이라는 콘셉트로 '피문어 곤약냉채'(사진)와 '노각겉절이'를 새롭게 내놨다고 8일 밝혔다.

'피문어 곤약냉채'는 탱글탱글한 식감의 곤약면과 오이·적양파·피문어를 오리엔탈소스와 비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냉채 메뉴다.

'노각겉절이'는 여름 한 철에만 먹을 수 있는 늙은 오이 노각으로 만든 겉절이 메뉴다.

최종만 강강술래 대표는 "이른 더위에 입맛을 잃은 고객들을 위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름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를 분기별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한국엘러간 '쥬비덤' 오윤아 광고 공개

한국엘러간(대표이사: 패트릭 제임스 홀트)은 필러 브랜드 쥬비덤(Juvederm)의 전속 모델, 오윤아와 함께 한 광고 촬영 컷을 공개했다.

현대적인 우아함을 뜻하는 '모던 엘레강스(Modern elegance)'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촬영에서 오윤아는 얼굴의 자연스러운 볼륨과 우아한 매력을 한껏 드러낸 포즈로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소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세련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주목 받아 온 오윤아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도 탄력있는 몸매와 변함없는 동안 얼굴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

겔 타입의 매끄러운 히알루론산 필러, 쥬비덤은 세계 100여 개국 에서 판매 중인 필러 브랜드로 제품 라인에 따라 이마, 볼 부위 볼륨 회복이나 미세한주름 개선 등에 사용된다.

/복현명기자

star bag

유병재 이어 YG 합류

개그우먼 **안영미**가 방송인 겸 작가 유병재에 이어 YG패밀리에 합류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영미의 영입 소식을 전했다. 안영미는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현재는 tvN 'SNL 코리아 시즌6'에 고정 호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글로벌 프로젝트 출연

배우 **이민호**가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 '바운티 헌터스'(감독 신태라) 출연을 확정했다. '바운티 헌터스'는 아시아 여러 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현상금 사냥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제작비 350억원 규모의 액션 코미디 블록버스터로 오는 8월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다.

'검은 사제들' 크랭크업

김윤석, 강동원이 지난 4일 영화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의 촬영을 마쳤다. 위험에 직면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미스터리한 사건에 뛰어든 두 사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강동원은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촬영했다. 많이 기대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클래식 통한 나눔예술 활동 행복해요"

피아니스트 겸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 대표 김지현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자신의 열정과 역량을 다 바치는 음악인이 있다. 피아니스트이자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 대표 겸 예술감독인 김지현(47) 씨다.

1988년 7월 '서울튜티앙상블'로 시작한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는 지난 27년간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57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특유의 앙상블로 음악계에 이름을 알리던 중 2002년부터 교향곡, 협주곡까지 다채로운 연주를 위해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로 확대했다. 2005~2008년 국내 최초로 모차르트 협주곡 전곡을 연주하고, 모차르트 '포스트 세레나데'를 한국 초연하면서 전문가 집단에서 인정받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 연주단체로 입지를 굳혔다. 이는 김 대표의 어머니인 피아니스트 이옥희(73) 여사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음악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은 감히 제가 비교 할 수 없어요. 한 번 무대에서 선보인 곡은 다시 연주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클래식 음악인들은 알겠지만, 한 곡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고희를 훌쩍 넘기신 지금도 어머니는 새로운 곡을 배우고 연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세요."

김 대표가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는 다양한 무대로 대중에 가까이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 농어촌희망재단과 함께한 '찾아가는 순회사업', 6년간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休(휴)-콘서트 시리즈', 2012년부터 서대문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펼치고 있는 '마티네 콘서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김 대표는 장애인, 환우, 다문화 가정, 탈북자 등 문화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다. 클래식을 통한 사회공헌을 항상 고민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 정기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소아암 병동을 찾아 이들을 위해 연주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중이다. 또 클래식을 배우고 싶은 장애인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무대에 설 기회도 제공한다.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달 서울 전역 14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열린 음악의 날' 행사도 진두지휘 했다. 아쉽게도 '열린 음악의 날' 행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연기됐다.

> 정기적으로 소아암 병동 찾아 연주
> 치료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연구도
>
> 가족음악회 등 연주활동 계속할 것
> 장애인 위한 음악캠프 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다가서려 하는데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하죠.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잘못하면 야단을 쳐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들이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면 정말 행복해요. 소아암 병동을 방문해서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죠. 의사들로부터 아이들의 병세가 호전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김 대표는 앞으로 어머니가 지켜오던 정통 클래식의 학구적이고 탐구적인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공생하지 않는 클래식은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아니스트로서 연주 활동도 활발히 할 것이다. 오는 10월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의 58회 정기연주회 때 협연한다.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협연 무대로 모차르트를 준비하고 있다. 또 어머니,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인 동생 김정현(45)과 함께 조만간 가족음악회도 열 계획이다.

"앞으로 하고 싶은 많은 일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음악을 배우고 싶은 장애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음악캠프를 주최하는 겁니다. 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이 모여 배우는 그런거요. 많은 단체가 문화소외 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예술 전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장애인에게 무조건 '잘한다' '훌륭하다' '감동적이다'라고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야 하죠. 가정형편 때문에 음악교육을 미룬 아이들에게는 음악에 대한 꿈도 키워줄 수 있구요.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권오상 작가의 '무제의 지드래곤, 이름이 비워진 자리'

지드래곤, 음악과 미술의 협업 시도

'피스마이너스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 지드래곤이 국내외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음악과 미술의 만남을 시도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YG엔터테인먼트는 "오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2,3관에서 '피스마이너스원: 무대를 넘어서(PEACEMINUSONE: Beyond the Stage)'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과 대중문화의 수준 높은 접점을 만들고,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뮤지션으로서 지드래곤이 보여 왔던 가시적 퍼포먼스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음악적 세계관을 반영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통해 팝뮤직과 시각예술의 창의적 키워드를 감상할 수 있다.

뉴욕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클 스코긴스, 프랑스 출신의 파비앙 베르쉐, 2015년 아르스일렉트로니카 골든니카를 수상한 미디어 아티스트 유니버설 에브리띵 등 해외 작가를 비롯해 현대미술과의 꾸준한 협업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SoA, 사진 조각으로 잘 알려진 권오상, 사진 매체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형근 등 12팀이 참여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은 "지드래곤과 작가들이 이 전시를 위해 1년 넘게 공을 들였다"며 "현대 미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숙한 주제와 소재로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전시 의도를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그동안 앨범 작업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오랫동안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작업을 통해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음악과 미술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지드래곤과 작가들의 예술적 교감을 통해 탄생한 설치, 조각, 사진, 페인팅과 지드래곤의 개인 소장품까지 200여 점이 전시된다. 서울 전시 이후 중국 상해, 싱가포르 등 해외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

지금껏 전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신데렐라!
2015, 신데렐라가 선사하는 마법같은 무대가 펼쳐진다!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신작

토니상 9개 부문, Emmy어워즈 2개부문, 총 30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수상.

'더 뮤지컬' 설문조사 2015년 기대작 1위

2015년 가장 기대되는 신작-라이선스 뮤지컬

더 뮤지컬 2015년 1월호

순위	작품	비율
1위	〈신데렐라〉	19.8%(75명)
2위	〈팬텀〉	17.7%(67명)
3위	〈베어〉	13%(49명)
4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4%
5위	〈로빈훗〉	10.1%

올해 처음 소개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중 가장 기대를 모은 작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데렐라〉다. 마법같은 무대와 의상 체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원작 자체에 대한 호감도 한 몫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신데렐라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신데렐라〉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의 제1의 관심사 였다.

2015, 마법같은 무대를 선사해 줄 신데렐라와 왕자님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앙상블을 찾습니다.

뮤지컬 [신데렐라]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9월 12일 ~ 2015년 11월 8일 ◈ **오디션 일정** 2015년 6월 29일 ~ 2015년 6월 30일

*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자는 외침 뒤에 감춰진 질문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제2연평해전 영화화…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에 초점

■ 연평해전

'연평해전'(감독 김학순)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부근 NLL에서 벌어진 남한과 북한 해군 사이의 교전을 소재로 한 영화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터키와의 3·4위전이 열리던 날 일어난 비극이었다. 남한에서는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제작 단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사회의 오랜 갈등 중 하나인 이념 대립의 문제를 건드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투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촬영 도중 캐스팅이 바뀌기도 했다. 고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영화에 뜻을 보탠 일반 관객의 힘 덕분이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해 마침내 영화로 완성될 수 있었다.

영화는 남북 대립과 이념적인 문제 등 민감한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가족 중심의 감동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사건 당시 순직한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영화는 이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지닌 남편 등 평범함이 이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도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관객 마음을 끌어들인 영화는 후반부에 펼쳐지는 전쟁의 참상으로 비로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낸다. 전투 장면은 걱정한 것과 달리 준수한 완성도를 보여준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외롭고도 참혹한 전투가 사실적으로 펼쳐진다. 평범한 개인의 삶이 거대한 이념 대립으로 벌어지는 전투로 무너져내리는 모습을 두 눈을 뜬 채 바라보기란 쉽지 않다. 그 순간 영화가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이들의 죽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영화는 다소 투박하지만 전쟁 소재의 실화 드라마로서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다만 영화를 보고 난 뒤 한 가지 의아함이 생긴다.

영화는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고 말하지만, 정작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영화가 그 대답까지 담았다면 걷잡을 수 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 것이다. 논쟁을 피하기 위한 상업적인 선택이지만 그것이 최선이었을지는 의문이 든다. 12세 이상 관람가. 6월 24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최강 브레인 총집합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고양국제고'편 첫 번째 이야기. 강남, 안내상, 김정훈, 박정현, 오정연, 손호준, 승희의 리얼 학교 적응기가 그려진다. 서울대 치대 출신 김정훈은 자신만의 암기법으로 처음 배우는 스페인어도 쉽게 외워버리지만 학교생활에 남모르는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15분

채연과 윤소이는 지난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야외 데이트를 하게 된다. 운동으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면서 핑크빛 기류는 점점 짙어져간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여름철, 내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나쁜 곰팡이' 정복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나쁜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착한 곰팡이를 이용하는 비법이 공개된다.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선생님의 미션으로 다짜고짜 길 한복판에 떨어진 네 제자들. 하루도 평범한 수업이 없는 집밥 백선생은 간장으로 무한 활용법을 선보여 이들을 놀라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57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47회)	15 불굴의 차여사 (10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22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6회)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17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후아유 – 학교 2015 (14회)	00 화정 (18회)	00 상류사회 (2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스팅>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셔틀콕>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49회) (재)	20 삼시세끼 정선편 (4회) (재)	40 한식대첩 3 우승자 레시피 (3회)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LG (SPOTV+) 한화 vs 삼성 (MBC SPORTS+) KT vs 롯데 (SKY SPORTS) 넥센 vs KIA (SBS SPORTS) NC vs SK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0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33·34회)	00 쇼킹 70억 (14회)	50 젠틀맨리그	
20시	50 JTBC 뉴스룸	10 집밥 백선생 (3회) (재)	00 오늘 뭐 먹지? (46·69회)	00 아시아의 열대-1부 나무인간, 오랑뽀혼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1회)	40 집밥 백선생 (4회)	00 올리브쇼 2015 (20회)	00 <인류 최후의 날, 둠스데이> 좀비 바이러스		
22시			00 오늘 뭐 먹지? (49·40회)	00 닐 타이슨의 스타 토크 (5회)	00 행복한 사전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7회)	00 현장토크쇼 TAXI (383회)	00 올리브쇼 2015 (20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 U보트 기지		
24시	20 사랑하는 은동아 (3회) (재)	00 Let 미인 5 (1회) (재)	00 메이의 파티쿠킹 (3회) 20 호주편필러 40 2015 테이스티로드 (20회)	00 <극한직업>목포 조기잡이	30 혈적자:황제암살단	

7일(현지시간) FIFA 여자월드컵 B조 1차전 경기에서 강호 독일의 공격수 사시치가 코트디부아르 골키퍼를 제치는 슈팅을 날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최강' 독일 해트트릭만 2명

FIFA 여자월드컵

코트디부아르 10-0 대파 노르웨이, 태국 4-0 제압

여자축구 최강 독일이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서 약체 코트디부아르를 대파했다.

독일(FIFA 랭킹 1위)은 8일(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 랜스다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각각 해트트릭을 기록한 셀리아 사시치와 아냐 미타그의 활약을 앞세워 코트디부아르(67위)를 10-0으로 꺾었다.

사시치는 경기 시작 31분만에 세 번째 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미타그도 후반 19분 팀의 여섯 번째 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팀이 우승후보임을 증명했다. 코트디부아르는 독일을 막아보려 분발했지만 오히려 시모네 라우데르와 사라 다브리츠, 멜라니 베링거, 알렉산드라 포프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대패했다.

북유럽 전통의 강호 노르웨이(11위)는 태국(29위)을 4-0으로 제압했다. 지난 1995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고 우승한 경험이 있는 노르웨이는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다. 처음 여자 월드컵 무대를 밟은 태국은 골키퍼 와라폰 분실이 후반 30분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분전했지만 막강한 노르웨이의 공격 앞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 8일 전적 (B조)

노르웨이(1승) 4(3-0 1-0)0 태국(1패) / 독일(1승) 10(5-0 5-0)0 코트디부아르(1패)

첫 16강 진출 도전 '윤덕여호' 부상 악령

신담영 발목인대 파열 '아웃'

여자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리는 윤덕여호에 또다시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8일(한국시간) 신담영(사진)이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로 대표팀에서 탈락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를 신고했으며 대체 선수로 김혜영(이천대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담영은 지난 4일 미국 훈련 캠프인 뉴저지 몽클레어 주립대 경기장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팀 스카이블루FC(5-0 한국 승)와의 연습경기에 출전했다. 경기를 마친 뒤 발목에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다. 대표팀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입성한 뒤 FIFA가 지정한 클라크 메디컬 이미징 센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신담영은 심서연, 임선주 등의 백업으로 주전은 아니지만 윤덕여호에서 전술적 활용도가 높은 선수다. '히든카드'로 준비한 스리백(3-back) 전술을 가동할 때 중심축을 담당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김혜영은 지난 '2014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안컵' 예선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이소담(21·대전스포츠토토), 이금민(21·서울시청)과 함께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2014 FIFA U-20 여자월드컵'에서 수비수로 활약하며 8강의 주역이 됐다. 9일 새벽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윤덕여호의 주요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낙마한 것은 벌써 3명째다.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두고는 미드필더 이영주(부산상무)가 소속팀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 인대와 연골을 다쳐 대표팀 합류가 불발됐다. 출정식 직전에는 '골잡이' 여민지(스포츠토토)가 무릎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 꿈을 접어야 했다.

한국 대표팀은 10일 오전 8시 브라질과 1차전을 치른다. /하희철기자

강정호 1안타 1타점 쐐기타

추신수 무안타 침묵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영양가 높은 적시타로 팀 승리에 보탬이 된 반면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무안타로 침묵하며 3경기 연속 타점 행진을 멈췄다.

강정호는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터너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타점 1개를 거둬들였다. 팀 동료 스탈링 마르테의 2타점 적시타로 균형을 깬 5회 2사 1·3루에서 찬스를 잡아 초구 체인지업을 그대로 잡아당겨 깨끗한 좌전 안타를 날렸다. 그 사이 3루 주자 조디 머서가 홈을 밟았다. 이날까지 41경기에 출전해 그 중 30경기를 선발로 나선 강정호는 이로써 시즌 타점 20개를 기록했다. 특히 2사 후 득점권에서 전체 타점의 절반이 넘는 11개를 건져 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입지를 다졌다. 시즌 타율은 0.274(124타수 34안타)로 약간 내려갔지만 득점권 타율은 0.324(37타수 12안타·18타점), 2사 후 득점권 타율은 0.350(20타수 7안타)으로 각각 올랐다. 피츠버그는 3-0으로 이겼다.

추신수는 같은날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삼진 2개로 경기를 마쳤다. 이로써 5일부터 3경기 연속으로 이어진 타점 행진이 끝났다. 무안타에 머물면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1(199타수 48안타)로 내려갔다. 텍사스는 3-4로 패했다. /하희철기자

이대호·오승환 9~11일 3연전 맞대결

이대호 오승환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는 동갑내기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오승환(33·한신 타이거스)이 올해 정규시즌 단 한 번뿐인 3연전 맞대결을 펼친다.

소프트뱅크와 한신은 9일부터 11일까지 소프트뱅크 홈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인터리그 3경기를 갖는다.

이번 대결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도 불린다. 이대호는 지난달 26일 시작한 인터리그에서 12경기 타율 0.378(45타수 17안타) 4홈런 17타점을 기록 중이다. 5월에만 타율 0.439 8홈런 24타점으로 월간 MVP로도 뽑혔다. 인터리그에서는 3년 동안 타율 0.336(271타수 91안타) 17홈런 57타점을 기록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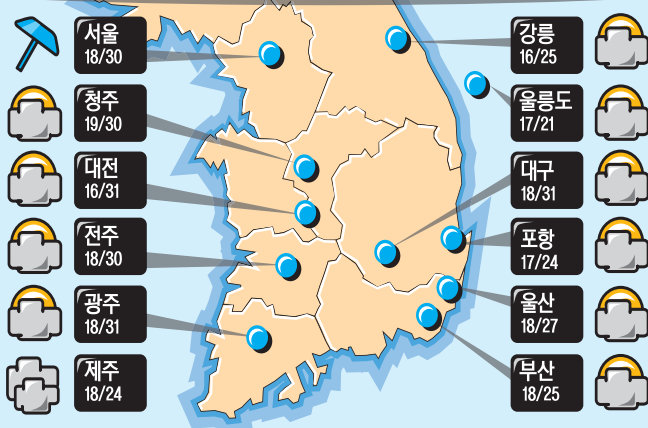
오승환은 2일 지바롯데 마린스와 경기에서 역전 만루포를 허용하며 시즌 첫 패(1이닝 3피안타 4실점)를 당했다. 그러나 3일에는 2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챙겼고 4일에는 1이닝을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고 세이브를 올렸다. 6일에는 3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다. 7일 경기에서도 삼진 2개를 곁들여 퍼펙트 피칭을 했다. 이번 인터리그 기간 9이닝 기준 탈삼진률은 무려 14.4다.

지난해 맞대결에서는 이대호가 좌전안타를, 오승환은 시즌 12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하희철기자

LPGA 유소연·이민지 4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매뉴라이프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사진)과 호주교포 이민지(19)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유소연은 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의 휘슬베어 골프장(파72·661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이글 한 개,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적어냈다. 이민지는 같은 날 보기없이 버디만 5개 추가하며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두 사람은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하며 자퀴 콘콜리노·크리스티 커(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유소연은 시즌 네 번째, 이민지는 세 번째 '톱10'에 올랐다.

대회 우승은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22언더파)이 차지했다. /하희철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3			4		8		
		2	1	6			3	
		8	6					5
				2		7	8	
	6		8		7	9		
					4	3		
1			9				6	
8	9							

			6		7			
3		7				9		2
		1		3		8		
	7	4	2		1	3	9	
	9	8	5		3	1	7	
		2		1		4		
8		5				7		1
			4		5			

스도쿠 정답

4	8	1	7	9	3	6	5	2
9	3	6	2	4	5	8	7	1
5	7	2	1	6	8	4	3	9
7	1	8	6	3	9	2	4	5
3	5	9	4	2	1	7	8	6
2	6	4	8	5	7	9	1	3
9	2	7	5	1	4	3	6	8
1	4	3	9	8	2	5	6	7
8	9	5	3	7	6	1	2	4

4	2	9	6	8	7	5	1	3
3	8	7	1	5	4	9	6	2
6	5	1	9	3	2	8	4	7
5	7	4	2	9	1	3	6	8
1	3	6	8	7	9	2	5	4
2	9	8	5	4	3	1	7	6
9	6	2	7	1	8	4	3	5
8	4	5	3	9	6	7	2	1
7	1	3	4	2	5	6	8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Strained Samsung C&T Corporation, due to Elliot Management Participation

<엘리엇의 삼성물산 경영참여 선언…삼성 '긴장'>

Samsung is under pressure because of the unexpected management participation of the U.S Ellio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enterprise on the 7th, they are gathering all of the information for the merge of Jae-il woolen fabric, Samsung C&T Corporation. If Elliot amity share increases 25% more, then the problem becomes critical.

The M&A takeover can only be possible if two thirds of the stock holders are in favor. If more than one third disagrees, then the whole process would be canceled.

Currently, Elliot is holding 7.12% and if they get 25% more, then they can determine whether to merge or not.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26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 합병 결의에 따라 삼성그룹 재편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사진)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예상치 못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경영참여를 선언해 삼성이 긴장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현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성공을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합병 주총일(7월17일)까지 엘리엇이 우호지분을 25% 정도만 더 모을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기업 합병은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병을 할 수 있다.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엘리엇은 이미 7.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25%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합병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업 권태기에 이직 제의… 옮겨도 좋을까요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 성공기회도 될 수 있어

기술명장 남자 69년 2월 14일 양력 18시경

Q 선생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인업으로 수많은 사람의 고민거리를 해결 해주시니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는 올해 47세 가장입니다. 공고 졸업 후 보일러 공으로 사우나나 빌딩의 보일러실을 담당해 왔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지하에서 더운 기운 속에 지내는 것이 싫증이 납니다. 가족들 생각으로 그럭저럭 참고 지내는 가운데 친구가 운영하는 보안 업체 일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에 탈피하고 싶은데 잘 될까요? 나이가 들은 지금 직장을 옮기는 것이 염려되지만 뭔가 새로운 계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A 사람은 일을 하면서 가치를 느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직업은 천차만별의 직종이 있으므로 이것을 맞게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성격과 특징, 부모님이나 주변사람의 뜻, 환경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장년에 직장과 직업을 바꾼 다는 것에 사주적인 설명을 해봅니다. 물론 위기(危機)는 위험도 되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또한 '한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말이 있으나 '오래된 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양면성도 있기 마련이지요. 다시 설명한다면 귀하는 경금(庚金) 사주가 음력1월에 태어나서 자기의 계절이 아니지만 다행이 사주 뿌리 부분에 신유(申酉) 금국(金局)을 이루고 시지(時支)에서 도와주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태어난 월(月)에 병화(丙火)가 투간(透干)돼 있으니 편관격(偏官格)사주입니다. 자긍심에 상처를 입는 것을 용납않고 완벽주의에 가까우므로 고객관리를 위한 것이 성미와 융통성에는 어렵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명주(命柱)로 애초에 권력계통에도 적합 할 수 있었던 아쉬움이 있는데 의협심이 많고 남을 돕는 기질은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그 기운이 직업을 바꿔 잘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기계나 기관, 운전 계통과 인연이 되므로 현재 보일러 업무를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이어진 것입니다. 사주의 직업 정서에 상생이 잘 되지 않는 구조는 돈을 어렵게 벌거나 지금처럼 환경이 미약하거나 열심히 해도 무언가 잘 안 되는 몇 십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안에 속해 있다고 보면 다소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9일 (음 4월 23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60년생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72년생** 내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너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96년생** 주위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우러지니 기쁜 하루입니다.

50년생 목표를 조금 낮추면 편해집니다. **62년생**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 일이 더디겠습니다. **74년생** 운이 좋으니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86년생** 다투면 다칠 수 있으니 피하는게 좋습니다.

51년생 길함과 흉함이 교차하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63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75년생** 어렵게 얻었으니 더욱 기쁩니다. **87년생** 겸손해야 주위의 시샘을 피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명예가 높아지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으니 기쁩니다. **76년생** 원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만 자만해선 안됩니다. **8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53년생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뀌니 새로운 것이 좋아 보입니다. **77년생** 방황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8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54년생 너무 믿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78년생** 준비 없는 시작은 금물입니다. **90년생** 여행이나 외출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6년생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중단하는게 좋습니다. **68년생** 주위가 합심하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0년생** 뜻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92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 달콤합니다.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훤하고 마음도 훤합니다.

58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생** 욕심만 줄이면 만사형통입니다. **82년생** 겸손하게 처신하고 내실을 다지는게 좋습니다. **94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계속 추진하세요.

59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71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하니 싸우지 말고 화해하세요. **83년생** 일보다는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95년생** 너무 큰 꿈보다는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메르스사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최치선의 세상만사

사망자 6명, 격리자 2508명(자가격리자는 2350명, 기관격리자는 158명), 감염환자 87명, 감염병원 29곳…이상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8일까지의 수치다.

그 중 사망자 1명과 감염환자 34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지난달 20일 최초 메르스 환자가 나온 이후 18일 만에 감염자와 격리자 등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총리대행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지만 메르스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뒷북만 치던 정부가 이번엔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2차 확산이 계속돼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은 이 병원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60번 환자(간호사)와 62번 환자(의사)로부터 노출됐던 의료진과 직원도 563명에 달해 전체 2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2차 진원지가 되고 있다.

앞으로 감염자와 격리 조치자는 병원과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라 더욱 추가될 전망이다.

전국 빅5에 드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거점병원이 된다면 메르스의 4차 감염 즉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로 꽉 차있는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역으로 전국에 메르스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흥, 용인, 순창, 김제에 이어 부천과 부산에서 발생한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삼성서울병원과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평택성모병원이 자가폐쇄조치를 한 반면 덩치가 훨씬 큰 삼성서울병원은 여전히 진료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 역시 7일에야 24곳의 메르스 관련 병원을 발표했지만 병원명도 틀렸다. 8일 추가로 5곳의 병원을 발표한 후에도 메르스 경보단계는 여전히 '경계'가 아닌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이번주만 지나면 메르스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낙관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과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

유효기간이 하루도 안되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에 신뢰감을 가질 국민은 많지 않다. 정부가 갈팡질팡 하는 사이 메르스 피해자는 점점 늘어가고 국민의 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에 책임을 질 정부 관료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책임지는 사람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책임자 처벌보다 늘 그래왔듯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씁쓸한 망각증이 메르스보다 더 큰 전염병처럼 번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대한민국의 고리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것은 지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정부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36조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에 '국가는 감염병에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의 의무가 있고 국민은 감염병의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실천하는 정부를 원한다.

'메르스·엔저' 만난 한국銀, 선제적 대응해야

기자 수첩
백 아 란
<경제부 기자>

한국은행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것.

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부작용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의 배경에는 지난4~5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산업생산과 수출부진 등이 있다.

실제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또 4분기째 0%대의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금리(1.75%) 수준에서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해서 수출 경쟁력이나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힌다는 점도 동결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0.75%포인트 내렸다.

이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두 달째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문제는 한은의 기대와 달리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은의 경우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쉽사리 금리인하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잇단 악재로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결국 상황을 지켜보기보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오는 11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의 선제적 결단이 요구된다.

인사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3급) 승진 ▷국제금융과장 김성욱
■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조상원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재범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한형주 ▷연구제도정보과장 김진형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최준호
■ 식약처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박상애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한국 ▷편집국 경제산업에디터(국장급) 김동원 ▷편집국 건설부동산부장 김두탁 ▷편집국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김광현
■ 아시아경제 호남본부
▷순천·고흥 담당 부국장 최경필
■ 강원일보
▷취재담당부국장 겸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장 김창우 ▷미디어국 부국장 김현철 ▷논설위원 박종홍 ▷정치부장 김석만 ▷경제부장 남궁현 ▷사회부장 신형철 ▷교육체육어린이강원부장 이규호 ▷문화부장 오석기
■ 한국정책신문
▷미디어전략담당 부사장 이익준

부고

▲남창현 씨 별세, 해붕(대신증권 상임고문)·해성(충남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해광(광주지법 판사)·민숙(즐거운치과 원장)·민정(동신대 간호학과 석사과정)씨 부친상, 김동구(법무법인 금성 변호사)·한신구(광주MBC 기자)씨 빙부상, 김순영(대전보건대 간호학과 교수)·전승희(KT 광주지사 과장)씨 시부상=8일 오전 2시47분, 금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0일 낮 12시, 062-227-4000
▲우양필 씨 별세, 권병태(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씨 모친상=8일, 인제대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 7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30분, 031-910-7444
▲김문수 씨 별세, 동현(전 전남일보 편집부국장·장흥 정남진 오디와송농원 대표)·석현(장흥농협 감사·장흥읍 자치회장)·재석(자영업)·인숙·재숙·삼숙씨 부친상, 최재실(광양제철)씨 빙부상=8일, 장흥중앙장례식장, 발인 10일, 061-363-5013
▲노상수 씨 별세, 이귀성(연합뉴스 부산업무팀장)씨 모친상=8일 오후 12시55분,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0일, 051-240-7161
▲박임수 씨 별세, 양맹준(전 부산시립박물관장)·범준(동부환경 대표)씨 모친상=8일 오전 6시43분. 조은강안병원 특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51-610-9009
▲정병일 씨 별세, 태균(신한금융투자 상무)·선옥·영균(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씨 부친상, 한전건(성균관대 교수)씨 빙부상=7일 오전 6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62
▲김진대 씨 별세, 은실·은영씨 부친상, 이해붕(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류기태(아나기획 이사)씨 빙부상=7일 오전 11시, 고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033-649-0100

자동차 튜닝협회 통합, 이제는 얘기 말자

김필수의 차 이야기

재작년 시작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어느덧 3년째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움직임을 일선에서는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불모지였던 국내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법적 개선을 한순간에 이루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내년 후반쯤에는 일선에서 느끼는 감각도 달라지리라 확신한다.

이번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산업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간주해 매진한다고 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일선에서 혼동을 느끼는 부분은 관련 부서가 나눠져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역할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국내 자동차 관련 업무는 환경부를 포함해 세 개의 부서로 나눠져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지금까지 민감한 분야의 경우 통합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비쳐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튜닝산업도 시너지보다는 이기주의로 보이는 대표적인 분야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자동차 튜닝산업이 제 궤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나방 같이 덤벼드는 모습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10여년 전부터 유일하게 튜닝산업 세미나 주관,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를 외쳐왔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토를 달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가 특히 여러 협회의 역할이 다름에도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선에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유지만, 국토부의 소관 업무인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와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제대로 된 자문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협회 설립 이전부터 각종 튜닝보고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일선에서 느끼는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는 튜닝에 있어서 기폭제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증제는 민간 활성화와 국민의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통합이 되지 못할 경우 구조변경제도와 인증제도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국토부와 산하 협회에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튜닝부품 중견기업 연구개발 등의 과제와 관련 전시회, 관련 모터스포츠 활성화 등의 책임은 산업부와 본 협회에 책임이 있다.

각자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다. 협회 통합은 쉽지 않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자동차 튜닝산업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쌍용 藝家 예가

기대하라! 독보적인 가치

중·소형 명품 아파트!

상도역·장승배기역 더블 역세권, 강남, 용산, 여의도 어디로든 빠른 출퇴근!
가치 높은 중·소형 평형대, 관악산과 청계산을 조망하는 **초고층 랜드마크를 소유하라!**

5월 29일
홍보관 오픈

환금성 높은 중·소형 프리미엄

상도역 도보 3분, 장승배기역 도보 10분

환금성 높은 중·소형 프리미엄

여의도 10분대, 강남 20분대

36층 초고층 관악산 조망권

상도역 7

장승배기 7

50㎡ (예정) · 59㎡ (예정) · 84㎡ (예정)

편리한 교통 · 쾌적한 생활 · 고품격 단지 · 우수한 교육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 **프리미엄의 중심에서 한 차원 높은 생활이 시작됩니다**

강남 - 탁월한 입지
강남, 용산, 여의도 등과 인접한 쾌속 교통망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더블역세권

관악산 - 고품격 단지
관악산을 조망하는 최대 36층 초고층,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는 고품격 주거 공간

한강 - 편리한 생활
한강생활권, 반경 2km이내 롯데백화점,
중앙대병원, 보라매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교육 - 우수한 교육
강남초, 상도초, 영등포중 · 고교 인접 및
인근 노량진 학원가 등 풍부한 교육환경

홍보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325번지

시공예정사 쌍용건설 · 신탁사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 · 업무대행사 상우디벨럽먼트

■시행 : 동작 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 쌍용건설 ■신탁사 : 무궁화신탁 ■업무대행사 : 상우디벨럽먼트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면적 : 15,581.00㎡(공동주택용지 : 14,498.00㎡, 도로 : 1,083.0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건폐율 : 32.42% ■용적률 : 399.97% ■연면적 :90,415.10㎡ ■공동주택 : 79,272.47㎡ ■판매 및 커뮤니티시설 : 10,065.69㎡ ■규모 : 지상 36층, 지하4층, 4개동 ■세대수 : 592세대 ■상기 홍보물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을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